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6호 HYUNBULNEWS.COM 2025년 1월 22일(음력 12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옥스퍼드 불교사전엔 '한국불교'만 없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가 발간한 〈옥스포드 불교 백과사전〉에 '한국불교'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티베트, 몽골, 동남아시아 심지어 서구 유럽과 미국불교까지 다루면서도 '한국불교'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옥스포드 불교 백과사전(The Oxford Encyclopedia of Buddhism, 이하 백과사전)〉을 발간했다.

해당 백과사전에 대해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는 "20세기 후반부터 불교학자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했고, 다양한 담론의 최전선에 섰다"면서 "이를 반영한 이번 백과사전은 불교학의 지속적 발전과 관련 학문 간의 진화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최초의 프로젝트"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백과사전에는 〈옥스포드 불교 문헌학(Oxford Bibliographies in Buddhism)〉 편집장이자 일본 진언종 수행자인 리차드 페인과 게오르기오스 T. 할키아스 홍콩대 교수가 대표 에디터로 참여했으며, 리처드 살몬 워싱턴대 교수, 바바 노리히사 도쿄대 교수, 브라이언 바우만 버클리대 교수, 옌츠 슐리터 베른대 종교과학연구소 교수 등 120여 명의 전문 불교학자들이 참여했다. 동국대에서 카메론 베일리 교수가 참여했다고 소개되지만 그는 2022년에 퇴직했다.

2024년 12월 23일 발간
옥스퍼드 불교 백과사전
138개 챕터, 1400쪽 '방대'
일본불교 챕터 14개 집중
미국, 유럽불교 3개 다뤄

'한국불교' 관련 기술 全無
"日불교 연구주제 편중돼
백과사전 함량 미달" 지적
韓불교학 위상 확립 '화두'

약 1400여 쪽에 달하는 백과사전은 138개의 챕터로 이뤄질 정도로 방대하다. 주요 내용은 〈아비달마구사론〉, 〈현관장엄론〉 등 경전 해설부터 불교 인물, 불교미술, 불교철학, 지역 불교까지 전반을 망라한다. 최근 부각되는 있는 세계화, 의료, 뇌과학, 미디어, 생명윤리 등 응용불교 영역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챕터를 나눠 다루고 있다.

지역 불교의 경우 일본, 중국, 몽골, 티베트, 동남아시아 심지어 미국불교와 서구 유럽불교까지 다루지만 챕터 어느 곳에서도 '한국불교'는 찾을 수 없었다. 지역 불교의 역사와 문화 등을 다룬 챕터들은 티베트 불교가 18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 불교 14개, 중국 불교 12개, 동남아·남아시아·중앙아시아 불교 8개, 미국 불교 2개, 유럽 불교 1개, 대만 불교 1개 순이었다.

특히 일본 진언종 수행을 하고 있는 리차드 페인이 대표 에디터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내용의 양과 질이 일본 불교에 편중됐다. 실제 내용을 실펴보면 △일본 불교와 의학 △불교와 신토(神道) △스즈키 다이세츠 전기와 영향 △니치렌 등 불교 인물 △나라 시대 불교 6종파 △진언 △일본의 밀교 불교 등 다양한 분야들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인도·네팔에서 탄생한 불교가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졌고, 한반도의 불교 역사가 1700년에 달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옥스포드 불교 백과사전〉이 백과사전을 표방하면서도 '한국불교'를 표제어에서 누락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더욱이 한국불교학계에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을 비롯해 불교학부 교수 정덕 스님, 안양규 WISE캠퍼스 교수 등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어 저술 관련 인력풀을 운운할 수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불교학자는 "백과사전의 목차들을 살펴보면 서구 유럽 불교학계가 관심 있는 연구주제만을 선별했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일본 불교 관련 연구에 편중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 불교들도 일본에 비하면 표피적인 수준이다. 이를 놓고 '백과사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이 책이 옥스퍼드 대학이 중심이 된 것인지 따로 기획해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인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서구 유럽 불교학계 연구 주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반대로 한국불교가 내세우고 있는 '세계화' 기치의 노정된 한계도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한국불교와 현대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기초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명예교수는 "현대 한국불교학의 역사 100년이 넘었지만 세계적인 인지도가 일본이나 티베트불교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국제적 연구 추세는 삶에서 불교가 어떻게 적용되고 경험되어질지에 관심이 많다. 이런 연구들이 이뤄지고, 연구자들도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딱딱한 교리서, 법문집은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이 녹아있는 한국불교 스님의 회고록 등을 우선 번역해 소개하면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 홍보부 홈페이지를 통해 〈옥스퍼드 불교 백과사전〉 관련 질의서를 1월 16일 보낸 상황이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1월 15일 통도사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서 법어를 설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눈 녹으면 봄이 오듯 봄이 오고 있다"

조계종 종정예하 신년하례법회
성파 대종사 희망의 교시 전해
진우스님 "승가교육 혁신" 강조

"어려움이 있어도 자장매의 향기는 온 누리에 퍼진다. 구름도 그 무엇도 향기를 막을 수 없다. 눈 녹으면 봄이 오듯, 우리 곁에 봄이 오고 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겨울철 향기를 품은 매화를 언급하며 "어려운 시국에도 봄이 오고 있다"는 희망의 교시를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5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불기 2569년 종정예하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성파 대종사는 "신년을 맞아 종단스님들과 사부대중 그리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년은 해마다 있고 지금이 곧 신년이다. 항상 신년을 맞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며 "언제나 지금이다. 명심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은 정월달이 신년이라 하지만 우리 출가사문은 언제나 지금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고 나중에 공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성주괴공(成住壞空)의 큰 수레바퀴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대중을 보고 우리는 마치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함께 아프듯 함께 아파해야 한다. 이번 한해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스님들이 되시기길 바란다"고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성파 대종사는 "산에 구름이 가득 있으면 산인지 구름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구름이 사라지면 일만이천봉 본래면목이 드러난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화 향기는 안개와 구름을 뚫고 전하듯 우리에게는 봄이 다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 법회는 개회, 헌향, 헌다, 헌화에 이어 삼귀의 및 반야심경, 통알, 종정예하 하례, 입정, 신년말씀, 하례, 인사말씀, 불단삼배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지혜와 자비로 정진할 것을 독려했다.

진우 스님은 "을사년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이다. 국가와 사회적 위기의 시기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지혜와 자비를 중심으로 종단은 정진 할 것"이라며 "종도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비와 평화, 사회통합의 정신을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특히 "미래불교를 열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종단은 승가 교육과 복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사회 전문가 조직을 종단의 테두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전법 일꾼과 자원봉사자 배출 등 전법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 아울러,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를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이끌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한 승가교육과 복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승가교육 역시 전면적 혁신을 준비하고 행자 교육 시스템부터 기본교육까지의 프로그램을 일대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종단 운영의 중요 동력인 스님들의 복지 역시 질적 도약이 중요하기에 이제는 '전면 복지', '완전 복지'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년하례 법회에는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와 원각 대종사, 일면 대종사, 보선 대종사, 원행 대종사, 법등 대종사, 정여 대종사, 동명 대종사 등 원로의원스님이 참석했으며, 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스님, 25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강의수 포교사단 수석부단장 등이 동참했다.

통도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梵魚

의상대사 창건
화엄종찰
호국불교의 중심사찰
국난(國難) 때 마다
민족불교를 지키는 중심 역할

2025학년도 금정총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전문 · 연구) 신입생 모집

■ 모 집 대 상 | 기본교육기관 졸업 및 비구계 수계자 (2025년 구족계 수지 예정자 포함)
■ 전문반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3. 기본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 사본
4. 반명함판 사진(3x4) 3매(종단 가사 장삼 수한 사진)
■ 전문반 수업과목 | 1 · 2학기 경분별, 불교윤리학, 범망경, 대승계경, 건도, 선원청규, 종헌 종법 등
■ 연구반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3. 율원 전문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 사본
4. 연구과제 계획서 및 필기시험(본대학원에서 율장의 기본소양 점검)
5. 반명함판 사진(3x4) 3매(종단 가사 장삼 수한 사진)
■ 연구반 수업과목 | 1 · 2학기 인도부파 불교, 율장, 초기승단, 한국불교 계율, 중국대승불교계경 등
■ 접 수 기 간 | ~2025년 2월 11일(화 음1.14)까지 (방문, 이메일, 우편)
■ 입방 갈마 일정 | 일 정 : 2025년 02월 13일 (목 음. 1.16) 시 간 : 오후 1시
장 소 :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큰방 준비물 : 가사, 장삼
■ 지 원 사 항 | 1인 1실 방사 지원, 매월 수행비 지원, 졸업여행 경비 지원,
교재 지원, 장학금 지급, 전문 습의사 자격 등
■ 원 서 접 수 | 우 편)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종무소 교무주임
이메일) beomeosa@daum.net
■ 전형 및 결과발표 | 면접 및 갈마 차후 개별 통보
■ 문 의 | 범어사 종무소 교무국 051-508-3122,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051-508-2171

금정총림 범어사 율주 범석수불 금정총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원 창

2025학년도 금정총림 범어사
승가대학 신 · 편입생 모집

화엄 종주 의상조사의 창건 이념을 계승한 「화엄경」사상과 경허선사께서 오래 주석하시면서 비롯된 선풍을 계승한 범어사 승가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사미 (2025년 봄 사미수계 예정자까지), 비구
■ 모집기간 | ~2025년 3월 31일(※사전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 | 1) 입방지원서 및 신상명세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서약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3) 건강진단서 (종합병원 *2025년 사미계 수지자는 생략 가능)
4) 사미증 사본
5) 사진(만의복장, 3×4규격) -3장
■ 준 비 물 | 만의(사미), 장삼, 발우
■ 전 형 | 서류심사, 면접(추후 개별 연락)
■ 지원사항 | 강의교재 구입비 및 최신형 테블릿 지원
졸업여행 지원 또는 해외 연수 비용 지원
입학금 면제, 전학년 매월 수행비 지원
화엄경 특강(화엄경 연구원 대강백 무비큰스님)
학습시간 및 여가시간 보장
동국대병원 MOU 체결, 병원비 · 약품비 지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범어사승가대학 051)508-3127
종무소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승가대학
방장 여산정여 대종사 · 주지 정오 · 학장 도산

운경 스님 “아상 커지면 패망…정법 실천”

태고종, 종정예하 신년하례 봉행
1월 13일 서울 백련사 대웅전서
법어 前 대중에 “존경한다” 인사
상진 스님 “이사무애 정신 구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1월 13일 서울 백련사 대웅전에서 을사년 종정예하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상(我想)을 놓고 살아야 합니다. 아상이 커지면 아만(我慢)이 되고, 아만이 더 나아가면 오만(傲慢)이 되며, 오만이 커지면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 정치 사회도, 종단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대종사가 태고종도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신년법어를 설하고 아상을 내려놓는 한 해를 강조했다. 종단 후학들에게는 부단한 정진과 정법 실천을 강조했으며, 정치인들에게는 아상을 내려놓고 국정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13일 서울 백련사(주지 동허 스님) 대웅전에서 을사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의 하례를 받은 운경 대종사가 강조한 것은 부단한 정진이다. 운경 대종사는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월월시호월 (月月是好月) 년년시호년(年年是好年)’이라 했다”면서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과 정진의 매일이 이어질 때 더 좋은 달이 되고, 1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상을 내려놓을 것을 강조한 운경 대종사는 정치인들에게 일침을 내렸다. 대종사는 “조선시대 선조와 인조가 정치를 잘못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발발했고, 무능한 정치로 인해 일제강점기라는 아픔도 겪었다. 다시는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정치인들은 한발 물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체대비의 실천을 강조했다. 상진 스님은 “불교가 앞장서서 모든 이념을 통합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을 통해 종단과 국가 그리고 사회가 모두 세계일화의 정신으로 나아가도록 전진하자”며 “종정예하의 법어처럼 화합과 상생의 지혜를 실천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갈등을 치유하는 일에 대해 우리 모두 매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백련사 주지 동허 스님도 인사말에서 “지난해의 마지막은 참 어렵고 힘들게 넘어갔다. 새해에는 사회가 평안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축사에서 “새해에도 내면의 평화를 찾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란다”며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편한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교문화사업단 국장에 본연·하원 스님

1월 14일 임명…종무특별보좌관 이규민 위촉


본연 스님


하원 스님


이규민 종무특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본연 스님, 문화사업국장에 하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새로 임명된 사업단 국장들에게 “템플스테이가 한국불교 세계화와 포교전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본연 스님은 마가 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했다. 감천사, 호국금강사, 호국홍익사, 기룡호국사, 보라매법당 등 군사찰과 동도선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현성정사 주지다.

문화사업국장 하원 스님은 설조 스님을 은사로 2009년 수계했다. 현재 영월 망경산사 주지를 맡고 있다.

같은 날 진우 스님은 조계종 정무특별보좌관에 이규민 전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진우 스님은 “불자로서 신심이 특출나고 국회의원을 수행한 만큼 정무적인 사안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규민 정무특별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안성), 안성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을 역임한 바 있다. 임은호 기자

교구본사주지협 “가톨릭 세계대회 특별법은 헌법 위배”

1월 15일 통도사 해장보각서 제82차 회의

“범종단 연대 한목소리” 공의 모아
성보유산 DB구축 등 현안 논의도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월 15일 회의에서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을 제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가 “한국 가톨릭이 준비 중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움직임”이라며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연대하고 제지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월 15일 영축총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제82회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헌법정신 위배하는 가톨릭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경과 보고(총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 관련 지침 관련 안내(기획실) △〈성보문화유산 DB구축〉 시범사업 보고(문화부) △2025 국제선명상대회 협조요청의 건 등 현안(미래본부)들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가톨릭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59인, 11월 19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이 동일한 제목으로 발의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단은 반헌법적 내용으로 규탄하며 종희의장 주경 스님을 위원장으로 대책위를 구성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가톨릭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에 대해 “범종단적으로 연계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가톨릭 성역화 움직임에 대해 조계종 뿐 아니라 종단협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이웃 종교와의 교류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가톨릭의 뻔뻔한 선교 활동에 강력 대처를 해야 한다”며 “범불교적 연대를 통해 한 목소리로 성토해야 뼈아픈 울림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도 “모두의 입장을 공의로 모아 전달하는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국회 측에 명확한 의사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를 사용해 가톨릭 선교활동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기재부 등 정부에 의사를 강력히 전달해야 하며 종교편향적인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며 “그들이 성역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미리 자세히 알고 저지하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가톨릭 성역화에 해당되는 교구본사는 역량을 더욱 결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가톨릭 순례의 길 조성에 각 군수와 단체장이 나서고 있다”며 “가톨릭 성지화 움직임이 크다. 관련 지역 교구장은 예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 등운 스님은 “심각한 사안으로 모두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 대처를 요구하셨으니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오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을 숙고해 범종단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8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는 3월 17일 봉선사에서 개최된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용주사, 제주항공 참사에 5000만원 지원

진우 스님 “마음 모아줘 고맙다”

용주사 본말사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마음을 보탰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 소속 본말사 스님들이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피해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8일 무안국제공에서 제주항공 희생자들의 합동 추모식이 있었고, 49재는 광주 무각사에서 봉행하기로 했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용주사 부주지 밀연 스님, 총무국장 중밀 스님, 수도사 주지 성인 스님,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이 동참했다. 김민재 기자



용주사 본말사가 제주항공 희생자 지원금 5000만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Ⅰ.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이 정한 기본 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24. 12. 16(월) ~ 2025. 02. 07(금)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인터넷 교부.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 및 합격자 발표	2025. 02. 14(금)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입학식 및 학사일정 추후 공지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 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재가자로서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 특전: 본종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Ⅴ.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필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수) 3. 기본증명서 1부(필수) 4. 사진: 반명함판 2매(필수)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5.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6.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이메일(dongbang2030@naver.com), 우편 접수 ※ 문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 02-745-2030, 010-3089-9983

Ⅵ. 교육비

■ 전형료 : 5 만원
■ 입학성금 : 20 만원
■ 등록성금 : 학기당 70 만원 농협 301-0212-6468-11 예금주/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www.dongbang.org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112)
TEL: 02-745-2030, 010-3089-9983,
FAX: 02-733-0728

“수개극행 덕목 삼아 종무행정 펼치겠다”

〈守改克行〉

1월 16일, 총지종 제 21대 통리원장 록경정사 취임

“승단 · 교도 마음 모아 한 걸음”

대승적 불교 중단 본분 강조

지성 종령 “무한 발전” 염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21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한 록경 정사는 취임선서에서 “지키고, 고치고, 실천하겠다”며 ‘수개극행’을 다짐했다.

불교총지종 제21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한 록경 정사가 중생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과 사회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수개극행’을 덕목으로 삼아 종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서원했다.

불교총지종은 1월 16일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제21대 통리원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제21대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취임선서를 통해 △원정 대성사 가르침에 따라 총지종의 종지와 종풍을 굳게 지키고 종단의 발전과 중생 교화를 위해 항상 서원하고 정진 할 것 △근본에 입각한 혁신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종단의 화평을 도모하며 현세정화와 복지 증진을 실현해 법신부처님의 대원을 세상에 널리 필칠 것 △통리원장 직무를 맡아 청정한 계율과 불심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할 것을 비로자나부처님 전에 곧게 서약했다.

록경 정사는 취임사에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첫발을 기억하고 교화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수개극행(守改克行)’을 강조한 록경 정사는 “창종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100년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현재, 제21대 통리원은 종단 반세기라는 역사의 반석 위에 교화발전이라는 주춧돌을 놓는다는 각오로 출발하고자 한다”면서 “‘지키고 고치며 극복하고 실천한다’는 수개극행을 덕목으로 삼아 종무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록경 정사는 “선대 스승들과 역대 전임자들의 뜻과 기본 정신에 충실해 추진 중인 업무는 더욱 견고하게 유지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업은 가르침과 교화발전에 부합하는지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면 승단과 교도들과 마음을 모아 이겨내며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종무행정 개선을 통해 시대에 적절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불교 종단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중생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 속으로, 사회 속으로 더욱 스며들 수 있도록 ‘수개극행’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취임식에 앞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불교총지종 종령 지성 대종사는 취임식이 종단의 무한한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발원했다.

법회에서는 퇴임하는 기로스승에 대한 사령장과 기로가사 수여식도 열렸다. 지성 대종사는 정원심 전수와 우가해 전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승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중생교화에 힘쓰고, 상구보리하화중생을 실천해 총지종 발전에 공헌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입적한 기로스승 법례월 전수의 유지에 따라, 유족 대표 안정혜 안정혜 보살교도가 불교총지종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발의 의원 만날 것”

특별법저지상임위 2차 회의

“의원 답변 따라 면담하겠다”

종편특위 서울·충청 방문 준비

가톨릭 국제 행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철회·보류하지 않을 경우, 불교계에서 의원 직접 면담을 추진한다.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주경 스님)’ 산하 상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저지상임위)는 1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10일 진행된 유현규 김병기 의원 보좌관과 저지상임위 실무팀의 면담 내용이 보고됐다. 실무팀이 전한 유 보좌관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법은 세계청년대회 개최에 앞서 각 기관들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실무팀은 “타종교계에서도 요청한다면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답변에 법안 철회를 바라는 불교계의 입장을 다시 전하고, 1월 27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저지상임위 위원스님들은 1월 27일까지 특별법 철회·보류 의사가 없을 시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갈 것을 결정했다. 위원스님들은 “대표 발의한 김병기·김상훈 국회의원 등과 직접 면담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은 뒤 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자”고 다짐하며 면담 일자를 2월 초반으로 지정했다. 또한 대표발의 의원 면담 결과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특별법 반대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같은 날 개최된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편특위) 제2차 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스님들은 세계청년대회 관련 지자체 현황을 공유하고 특위 차원에서 진행할 활동에 대해 결정했다. 위원장 선광 스님은 “우선 서울시와 충청도 지자체에 위원스님들이 방문해 항의하자”면서 실무진에 검토를 요청했다.

종편특위에서 공유된 세계청년대회, 가톨릭 성역화 관련 지자체는 △서울시 △용인시 △인천시 △파주시 △경기도 △충청권역 등이다.

김가령 기자

“비구니스님 실질적 복지 위해 노력을”

비구니회, 2025년 워크숍

전국비구니회원葬 등 논의



전국비구니회는 1월 12~14일 경주 황룡원에서 워크숍을 갖고 2025년 사업을 논의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지난해 사업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새해의 발전 방향과 신규 사업을 논의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2025년 상반기 소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총무부, 기획실, 교육부, 문화포교부, 복지부, 국제사회부, 재무부 등 주요 부서가 진행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방향 및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발표는 주요 부서 뿐 아니라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사찰음식연구소, 차문화연구소, 불교영적돌봄연구소 부설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계획설명도 이어졌다.

2024년 사업 결과 보고에서 전국비구니회는 ‘주어사지 종합안내판 수정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어사지 종합안내판 수정 설치’는 유적지 안내판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직접적으로 관공서에 건의하고 대응을 확인한 사례다. 전국비구니회는 올해도 여주시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우리 힘으로 찾은 주어사지 역사 속 걷기 명상’ 등 행사를 추진해 주어사지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알리고 종교 편향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인 홍보, 무료 행정·법률 상담,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 지원,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탄소비움 자비 채움 환경대축제 ‘그린붓다데이’ 환경콘서트와 환경 캠페인, 장학 사업 및 승려인증연수교육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비구니회 복지부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전국비구니회원장’을 준비한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비구니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례를 담당하고 도제 혹은 연고가 없는 비구니스님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독거비구니스님 돌봄 지원 사업’도 마련된다. 안정적인 복지 환경과 정서 돌봄을 위한 사업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다가가는 복지환경 조성”을 강조한 회장 광용 스님의 공약을 구체화 했다. ‘독거비구니스님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전국비구니회는 정서돌봄 필요 현황을 파악하고 신청서 등을 제작해 사업 홍보 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회장 광용 스님은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 먼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광용 스님은 “25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해온 사업을 바탕으로 유익하고 공익적이고, 비구니스님의 권위와 위상을 위해 새롭게 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며 “의료와 장례 의례절차 등 실질적인 복지와 어른스님들을 위한 보살핌 등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고민하고 계획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주 황룡원=하성미 기자

조계종, 신우철 완도군수에 감사패

진우 스님, 성보 발굴 · 보존 이바지 치하



진우 스님은 1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완도군 불교문화유산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했다.〈사진〉

신 군수는 돈독한 신심과 원력으로 성보 발굴 및 보존에 협조한 것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도 신흥사, 학서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최근에는 완도 신흥사 목조약사여래좌상을 국가 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지원했다. 또한 완도 장좌리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완도군의 불교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완도를 “불교와 인연이 깊은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신라의 무장 장보고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진우 스님은 “완도의 본래 이름은 원도로,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한 녹야원에서 따와 장보고 대사가 붙인 이름”이라며 “장보고는 중국 적산 법화사, 제주 법화사, 완도 법화사를 건립하며 우리나라에 선불교를 들여왔고 이는 구산선문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도 불교의 역사적 배경을 더 잘 살펴 성보의 발굴 및 보존에 힘쓴다면 관광산업, 특히 불자들의 순례코스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신 군수도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저변 확대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임은호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5학년도 학점 은행제 신(편)입생 모집안내

(교육부 학위 인정 교육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3매

■전형일정 | 2025년 1월 1일 ~ 2월 28일

■개 강 | 2025년 3월 첫째주 3월 4일 (화요일)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 향 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삭발로 번뇌 벗어나 불제자로 첫걸음”

수원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3기
1월 11일 육화당서 삭발식 열려
총 12명 입교…젊은 참가자 다수
25일까지 보름간 승가 생활 체험

수원=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이 입교생에게 삭발의식을 행하고 있다.

스님들 앞에 입교생들이 차례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결의가 교차했다. 스님은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다른 한 손으로 가위를 들어 올렸다.

“삭발식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모든 이익을 중생들에 돌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스님의 당부에 입교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내 머리카락이 잘렸고, 12명의 입교생들은 세속의 집착을 내려놓으며 불제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1월 11일 경내 육화당에서 ‘제3기 여성출가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행자 삭발식을 거행했다. 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한국전통 승가생활 체험에 앞서 ‘무명초’라 불리는 머리카락을 잘라 수행 의지를 다지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3기 여성출가학교는 젊은 세대 참여가 두드러져 눈길을 끌었다. 입교생 총 12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MZ세대이며, 10대도 방학 기간을 이용해 2명이나 참여했다.

의정부광동고에 재학 중인 수경심(19) 입교생은 ‘출가’를 깊이 고민하던 중 학교에 붙어있던 여성출가학교 홍보 포스터를 보고 이곳을 찾았다. 수경심 씨는 “스님인 어머니께선 늘 ‘진실하게 살 것’을 일러줬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그 삶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출가학교를 선택했다”며 “대중생활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이 역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많이 배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교생 중 막내인 설경화(18) 씨도 “일단 부딪쳐보자”는 마음으로 체험을 결심했다. 설경화 씨는 “템플스테이에 가고 싶었는데 나이가 어려서인지 부모님이 반대했다. 그런데 이번엔 출가학교 광고가 실린 신문을 보고 어머니가 먼저 권유했다”며 “싱잉볼 명상으로 잡생각을 떨치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삼귀의·반야심경 봉독과 본격적인 삭발식이 이어졌다.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장궤합장한 12명의 입교생 가운데 1명이 삭발했고, 11명은 부분 삭발로 의미에 동참했다.

머리카락을 잘라준 스님들은 입교생들이 수행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서원했다.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은 “삭발은 일체 악을 끊고, 복과 지혜를 닦는 수행”이라며 “수행한다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수행을 통해 얻는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 베풀어 모두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서원이 반드시 삭발 의식에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노란색 행자복으로 맞춰 입은 입교생들은 자른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를 삭발탑 아래 묻고, 초발심을 잊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입교생 중 유일하게 삭발을 결행한 십지행(57) 씨는 “불교를 뒤늦게 만나 40대 초부터 신행공부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출가와 삭발의 뜻을 품고 있었다”며 “두 딸이 반대했지만, 부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 이번엔 꼭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라며 “참선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스스로 돌보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전했다.

이날 출가학교에 입교한 이들은 1월 12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고불식을 봉행하고, 석좌교수 도혜 스님 특별법문(1월 13일), 자비수참(1월 14일), 행다선명상(1월 17일), 삼귀의계오계수계식(1월 18일), 일보일배(1월 20일), 선재 스님 사찰음식특강(1월 21일), 회향식(1월 25일) 등 다양한 사찰 수행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불교 교리와 수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3기 여성출가학교에서는 ‘명상’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시간을 대폭 늘렸다”며 “국내외 혼란과 어려운 시국에서 입교생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故김윤심 보살 유족, 동국대에 기금 전달

1월 16일 교내 정각원서
5000만원 장학금 보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모친 故김윤심 보살 유가족이 생전 교육 불사에 원력을 세웠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동국대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故김윤심 보살 유가족은 1월 16일 교내 정각원에서 봉행된 고인의 6재에서 동국건학장학 기금 5000만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사진〉 故김윤심 보살은 생전 교육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이날 전달식을 마련했다.

돈관 스님은 법어에서 “세월이 다해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밖에 없다’는 진리다”며 “오늘 동국대에서 재를 지낸 건 故김윤심 보살이 이 남산도량 동국대와 인연 맺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도 동국대와 좋은 인연 맺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재 기자

배아현·김소유, 복지재단 홍보대사 위촉

1월 16일 진우 스님 예방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배아현·김소유 트로트 가수를 2025년 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사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배아현·김소현 트로트 가수를 재단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복지재단은 이번에 위촉된 두 홍보대사와 함께 종단의 사회복지사업을 알리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를 ‘무애시’라고 한다. 아름다운 음성공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보시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복지재단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다”고 격려했다.

김민재 기자

“템플스테이, 이제 영어로도 자연스럽게”

문화사업단, 불교문화 한영 동영상
한국관광공사 관광e배움터에 게재
사찰의 하루·스님의 삶 등 4강 구성

외국인 관광객이 사찰을 방문하거나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한국 불교문화를 영어로 효과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원활한 통역을 돕기 위해 ‘불교문화 해설을 위한 한영통역 교육’ 동영상을 제작, 한국관광공사 관광e배움터에 게재했다.

해당 동영상은 △산문과 법당 △불상의 이해 △스님의 삶 △사찰의 하루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사찰의 구조와 불상, 스님들의 일상 등 한국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영어로 통역하는 방법을 담아, 전문적인 통역 기술과 실질적인 용어 활용법을 소개한다. 특히 기존 관광통역에서 다루지 않는 불교문화 특화 용어를 반영해, 템플스테이와 사찰 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번역 방법 전달에 중점을 뒀다.

그간 관광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 절반 이상이 불교 문화재임에도 이를 외국어로 상세히 통역하고 안내할 전문 인력과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2018년부터 관광통역안내사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해설 교육을 시작했다.



관광e배움터에 게재된 불교문화 해설을 위한 한영통역 교육’ 동영상.

이번 교육 동영상은 현장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종사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강의는 관광통역안내사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관광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화사업단은 2025년에도 불교문화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통역 인력 양성과 교육 동영상 제작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동영상은 한국관광공사 관광e배움터(https://touredu.visitkorea.or.kr) [교육과정]-[직무강좌]-[안내/해설]-[안내해설실무]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내영 기자

“청년회 걸맞게 청년 전법에 매진”

이길수 대불청 회장 취임식
1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서



청년 불자 신행단체인 대한불교청년회 제33대 중앙회장에 이길수 전 대불청 부회장이 취임했다.〈사진〉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길수, 이하 대불청)는 1월 1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한불교청년회 제32·33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길수 중앙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청년 전법’에 매진 할 것을 다짐했다. 이 중앙회장은 “대불청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년포교·전법’”이라며 “대한불교청년회의 이름에 걸맞게 청년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소임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 당선 당시 중앙회장의 권한을 오직 대불청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대불청의 체계를 확립하고 지회와 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기자

점성술이나 제사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불법을 배웁시다.
강남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10명의**
신도만 확보해도 사찰운영이 가능합니다.
강남불교대학에서 새로운 불교를 만나보세요.
강남불교대학에서 2025년 승려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남불교대학 승려반 설명회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요일) 오후3시
장 소 강남불교대학 참종사 (서초구 방배동)
참가자격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님
점성술이나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스님
스님이 되고 싶은 재가자

참가신청은 QR코드로 ▶
문의 02)532-0012

출강 및 통신 2025학년도 제34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전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4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02)733-1959 720-1836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1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6회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천진불의 영어 전생담 경연…"부처님처럼 살래요!"

국제포교사회,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 현장

'16회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
국제포교사회, 1월 12일 개최
130명 예선, '30팀' 본선 진출

암기는 기본, 춤 · 노래도 선봬
송시우 · 홍채은 · 추우주 · 하지현
대상인 '포교원장상' 수상해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I want to be a wise and kind buddhist, like a buddha himself!"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불자가 될래요, 부처님처럼요!)

한국불교의 미래인 불자 어린이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영어 실력을 뽐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담긴 〈자타카〉를 영어로 공부한 어린이들은 입을 모아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는 1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6회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부처님 전생담 〈자타카〉를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배워, 불심을 고취시키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육성코자 2008년부터 마련됐다.

대회에 앞서 조규태 국제포교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불교의 희망이 밝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며 "앞으로도 신심을 잘 유지해서 불교 중흥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전생, 금생, 내생 삼세인과를 믿는다는 것이다"면서 "오늘 자타카 어린이 말하기 대회로 학생들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읽고 배우고 발표한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다. 어린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130여 명이 지원했으며, 영상 예선 심사를 거쳐 총 3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진관사, 구룡사, 청계사, 봉녕사, 삼성암 등 다양한 사찰에서 모인 어린이들은 저학년부(초1~4)와 고학년부(초5~중3)으로 나뉘어졌다. 어린이들은 '메추리기왕과 사냥꾼' '할머니의 검둥이' '날아갈 수 없었던 아기 메추라기' '반얀 나무의 탄생' 등 9개의 〈자타카〉 원고를 토대로 발표를 준비했다.

이번 자타카 대회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 〈자타카〉를 공부하며 불자로서 느낀 '교훈'과 '다짐'을 밝힌 참가자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날아갈 수 없었던 아기 메추라기'를 발표한 김연준(11) 학생은 "산불로 인해 혼자 남겨진 아기 메추라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아 지혜의 힘으로 불을 꺼 모든 생명을 구제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옥에 간 사람이라도 돕겠다는 다짐(vow)을 하게 됐다. 앞으로 매일매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소빈(11) 학생은 '춤추는 공작'을 통해 불교의 '겸손'을 강조했다. '춤추는 공작'은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던 공작새가 자신의 오만함으로 아내를 잃는 교훈이 담긴 우화이다. 김 학생은 발표에서 "배우나 쇼트트랙 선수처럼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인데 공작새처럼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언제나 겸손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자타카 대회 처음으로 2인 이상이 그룹을 이뤄 이목을 사로잡기도 했다. 김도하, 이동건, 박서이, 김세린, 양희진 팀은 한 농부의 '거대한 황금덩어리' 이야기로 3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첫째 산적이 땅속 깊이 숨긴 황금을 끝까지 캐낸 농부처럼 '포기하지 말 것', 둘째 황금을 나눌 방법을 신중히 고민한 농부와 같이 '천천히 생각할 것', 끝으로 어려운 이웃과 황금을 나눈 농부를 본받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행복하다는 것이다.

참가자들 간 열띤 영어 겨루기가 끝난 후에는 심사발표가 이어졌다. 심시위원장 정혜 스님은 "이번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단순한 영어 실력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대상(포교원장상) 수상의 영예는 '반얀 나무의 탄생'을 발표한 추우주, 하지현 팀과 '기쁨이라고 불리는 황소' 이야기를 전한 송시우, 홍채은 팀이 안았다. 송시우(13, 은빛초) 학생은 "받을 줄 몰라서 기대도 안 했는데 수상하게 돼서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영어 공부에 매진해 멋진 불자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연준 학생은 불자로 살 것을 다짐했다.


쇼트트랙 선수가 꿈인 김소빈 학생.


송시우·홍채은·추우주·하지현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했다.


'반얀나무' 우화를 발표하는 추우주·하지현 어린이.


신나는 율동과 독특한 분장은 덤.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라오스 아이들, 동명불원에 "코업 차이"

〈ຂອບໃຈ, 감사합니다〉

1월 7일 라오스 팍폽초교 방문
노트, 연필 등 학용품 전달해
300만원 상당, 후원물품 기증
동명불원 신도 십시일반 모금
풍성한 쌀나눔으로 후원 이어

이도경 부산지사장 yongjang88@naver.com



동명불원은 1월 4일부터 9일까지 5박 6일 동안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재)부산동명불원(원장 원순 스님, 이하 동명불원)이 새해를 맞아 라오스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동명불원은 1월 4일부터 9일까지 5박 6일 동안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성지순례 기간 동안 동명불원 신도들은 라오스 팍폽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용품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번 자비나눔은 성지순례를 준비하던 가운데 라오스의 열악한 학업 환경을 알고 원장 원순 스님이 발의해 마련됐다.

동명불원 신도들은 먼저 현지 여행사를 통해 후원이 필요한 학교를 추천받았으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라오스 어린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학용품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학용품을 선호한다는 정보에 따라 신도들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금했다. 신도들은 직접 어린이를 위한 학용품을 구매하고 전달했다. 현장에서 학용품을 전달하자 라오스 어린이들은 손을 모으고 "코업 차이(ຂອບໃຈ, 감사합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전달한 학용품은 학생당 스케치북, 노트, 연필, 색연필, 연필깎기, 지우개, 색종이묶음 등이다. 동명불원은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 교사에게도 연필, 고급볼펜 등 다양한 학용품을 전달했다. 각 교실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미노 게임 세트와 대형 연필깎기도 전달해 총 3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후원했다.

전달식에는 성재곤 동명불원 신도회장, 이석근 사무국장, 이원옥 이상수 신도회 부회장 등 신도 13명이 참여했다.

성재곤 신도회장은 "이곳은 우리나라 60~70년대보다 열악한 환경인 것 같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여러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행사가 가장 뜻깊은 행사인 것 같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스님께도 감사하며 앞으로 더 많은 자비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동명불원은 이번 자비나눔을 계기로, 해외성지순례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한편, 동명불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부산남구청에서 자비의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명불원은 백미 20kg 500포를 전달했다. 자비의쌀은 연말을 맞아 소외이웃을 위해 회향됐다.

동명불원은 지역 관내 소외 이웃을 위한 쌀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매주 20kg, 20포를 부산역과 부산시청, 부산진역 등 무료급식소에 후원하고 있다. 독거어르신 및 소외 이웃을 위한 연말 떡국 나눔도 진행하고 있다.

"비구니 승가 밝힐 등대 되겠습니다"

봉녕사, 1월 10일 승가대학 · 율학승가대학원 졸업식

승가대 5명 비구니 졸업생 배출
대학원 전문 · 연구과정 5명 졸업
성효 스님, 제2교구 장학금 전달



수원 봉녕사는 1월 10일 승가대학 제51회 졸업식과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제23회 전문과정 · 제10회 연구과정 졸업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승가대학 졸업생 기념촬영 모습.

세주당 묘엄 명사의 유지를 이어 비구니 교육에 힘쓰고 있는 계율도량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1월 10일 봉녕사승가대학 제51회 졸업식과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제23회 전문과정·제10회 연구과정 졸업식을 진행했다.

이번 봉녕사승가대학 졸업생은 연지 스님을 비롯해 5명이다.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은 다일 스님 등 전문과정 4명과 연구과정의 수연 스님 등 총 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행사에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스님들, 봉녕사승가대학 외래교수인 선재사찰음식연구소 선재 스님 등이 함께했다.

이날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학인스님들의 수행정진을 독려하며 '제2교구본사 용주사 교구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성효 스님은 "부처님은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예경만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뛰어넘어야 할 모델"'이라며 "목숨을 내놓는다는 각오고 큰 원력을 세워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졸업한 스님들의 밝은 앞날을 축원했다. 스님은 "어느 한 가지는 똑 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훌륭하고 소중한 인재가 돼 승가와 자신을 밝히는 등대가 되길" 기원했다.

졸업생 스님들은 졸업증서를 받고 논문을 부처님께 봉정한 뒤, 봉녕사 스님들과 교수스님에게 꽃공양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인간으로서 그리고 수행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어른스님들의 은혜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다. 어려운 순간마다 올바른 길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봉녕사승가대학 졸업생 연지 스님과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졸업생 다일 스님이 교육원장상을, 봉녕사승가대 졸업생 정묵 스님과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졸업생 선진 스님이 본사주지 스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도 졸업생 스님들에게 각자 성적에 따라 상과 부상이 주어졌다.

한편, 봉녕사승가대학은 이번 51회 졸업생을 포함해 총 91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은 제23회 전문과정 4명과 제10회 연구과정 1명 등 총 107명이 졸업했다.

김내영 기자

부석사 금동관음상, 647년 만에 부석사로

1월 24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서 이운법회

부처님오신날까지 친견 가능
친견 이후 日 대마도에 반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이 일본으로 반환되기 전, 647년 만에 부석사로 이운된다.

서산 부석사불상 봉안위(대표 이상근, 이하 봉안위)가 1월 24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옮기는 이운 법회를 봉행한다. 이후 오는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친견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일본 대마도 관음사 주지가 부석사 100일 친견법회 요청에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78년 왜구에 의해 반출됐다가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됐다.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대마도 관음사 점유시효를 인정해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조계종은 환부 전 부석사에서 친견법회 봉행 제안을 대마도 관음사와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대마도 관음사가 이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보내 이뤄졌다.

이상근 부석사 불상 봉안위 대표는 "지난 11년간의 봉안 운동을 통해 단 하루만이라도 불상을 부석사에 봉안하자는 염원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695년 전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하자는 서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부산聯, 재가 동안거 템플스테이

1월 11~12일 통도사서 회향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재가 동안거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안거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대광명사, 미타선원 홍법사 등 8개 회원 사찰 소속 불자 40여 명이 동참했다. 프로그램은 불교 문화 체험인 천연염색과 염주 만들기가 이어졌으며 사찰의 고즈넉함을 누리는 무풍한송로 걷기도 진행됐다. 특히 '마음 알아차림'을 주제로 진행된 명상 수업은 큰 호응을 얻었다.

회장 목종 스님은 "통도사에서 경험한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 인연을 이어가고 소중한 인연의 힘으로 해탈열반에 이르는 좋은 인과를 맺으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사천왕재 봉행…시민 안전 기원

1월 14일 범어사 천왕문서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1월 14일 천왕문에서 '을미년 사천왕재'를 봉행했다.〈사진〉

범어사는 매년 음력 12월 15일 사천왕재를 봉행하며 도량과 부산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기원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방화로 전소된 천왕문을 복원하고 매년 진행되는 사천왕재는 범어사의 새로운 새해맞이 행사로 자리잡았다.

사천왕재에는 범어사 총무국장 대방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총무국장 대방 스님은 "동참한 모든 인연이 새해를 맞아 안전하고 염원한 서원이 이뤄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환경연대 큰고니 먹이 나눔

1월 12일 낙동강 생태공원서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1월 12일 낙동강 생태공원 일원에서 '큰고니 먹이주기 생태방생 및 생태탐방'을 진행했다.〈사진〉

먹이주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박중록 운영위원장(습지와 새들의 친구)의 '큰고니가 생태환경에 끼치는 역할' 강의를 경청했고, 고구마와 볍씨를 먹이로 전달하며 생태활동에 동참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 외에도 낙동강 겨울 철새 큰고니를 먹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한다면 자연환경을 위한 큰 방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 암 환우 기부금 전달

1월 14일 기장 일등가 식당서
각 150만원 환자 2인에 전달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가 1월 14일 부산 기장 일등가 식당에서 '암 환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효운 스님)가 1월 14일 부산 기장 일등가 식당에서 '암 환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는 효운 스님이 7년 전 시민들의 건강백세를 기원하며 시작한 모임으로 매년 기장 바닷가 일원에서 마라톤 대회를 열고 있다. 매회 참가인원이 늘어 매년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번 해에는 이미 7000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혀 부산 기장군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효운 스님은 참가비 가운데 1인 300원을 모아 암 환자 치료비로 회향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에서 각 150만원,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내빈 소개 및 인사말, 부산시 체육공로 표창장 순으로 진행됐으며, 효운 스님, 이승우 부산시 의원, 홍소영 기장바다마라톤 준비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산시 체육공로 표창장은 홍소영 기장바다마라톤 준비위원장이 수상했다.

효운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시대에 어울리는 여러 방편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마라톤은 이 시대 건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효운 스님은 책 '건강백세의 지혜'를 저술했으며, 현재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장, 동남권의학원 암센터 윤리위원, 전국 ROTC 불자회 법사, 연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는 6년 동안 12명의 암환자에게 1800만원을 후원했으며 기장 해안로에 마라톤 파크를 조성해 참가자 이름을 동판에 각인해 널리 알리고 있다. 53사단 장병 1200명을 대회에 무료로 초청해 격려했으며 인도 보드가야와 협업해 한국-인도 간의 스포츠 교류를 시작했다. 이번 해 기장바다마라톤 대회는 4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의왕 청계사, 제11회 불교대학 졸업식

1월 7일 경내 설법전서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 스님)가 1월 7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11회 불교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 졸업식에는 청계불교대학장 성행 스님을 비롯해 총무 성견 스님, 청계불교대학 지도법사 명원 스님, 재무 명종 스님, 석가사 교무 명우 스님, 총신도회 임원진들과 50여 명의 졸업생이 참석했다.

성행 스님은 "졸업은 나의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부처님 제자로서 마음속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나와 남을 위해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봉선중행(선을 받들어 행하라)하고 자리이타(자기도 남도 이롭게 함)를 몸소 실천하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개론에서 공부한 내용을 PPT영상으로 다시 감상하며 1년 동안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겼다.

이날 우수 모범학생들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 평소 성실한 자세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박정이(여래심) 학생이 포교원장상을, 김형숙(만법지) 학생이 불교대학장상을, 곽만순(자은) 학생이 주지특별상을, 박혜경(수경지) 학생이 총신도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내영 기자

“마음 촛불 밝히고 살아가겠습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교사직무연수 회향

1월 7~8일 전국 교사 대상
주인공 관법 접목 교육 논의
혜연스님 “교육현장 도움되길”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의 교사 직무연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1월 13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가르침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마음가짐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진행한 교사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회향했다.

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이번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에는 통영 인근 지역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석해 다양한 강의와 참여형 실습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마음교육’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번 교사 직무연수는 교사들이 마음교육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사 직무 연수 강의는 김민선 서종초 교사의 ‘고정관념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과 혜서·혜환 스님의 ‘마음을 여는 대화’ ‘괜찮지 않아도 돼!’, ‘촛불명상’ △한마음 출판부 혜교 스님이 ‘주인공으로 살아요’ △최명희 경북대 강사의 ‘나로부터 시작하는세상’ △박옥남 경남 한마음인성교육연구회 연구원의 ‘마음의 원리’ △차희원 통영중 교사의 ‘무지의 자각’ △박훈 생사학아카데미 연구원의 ‘아름다운 고백(Go Back)’등도 이뤄졌다.

이번 교사 직무 연수에서는 현대 교육 환경에서 교사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학생 및 동료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됐다. 참석한 교사들은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1월 13일 교사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회향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교사는 “내면으로의 자기 성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지켜보는 시간이었다”며 “일상에서도 마음의 촛불을 켜고 밝혀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교사가 되려고 애쓰면서 힘들었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마음의 중심을 잘 세워야 주위에도,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실패나 두려움도 모두 주인공(主人空)에 맡기고 살아가면 된다는 가르침이 큰 위안이 되고 개인적인 고민도 많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이번 연수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교사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 백양사, 만암 대종사 68주기 다례재

1월 14일, 경내 대웅전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가 근대 중창조인 만암당 종헌 대종사(1876~1957)의 열반 68주기를 추모하는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월 14일 경내 대웅선에서 ‘만암당 종헌 대종사 제68주기 추모다례재’를 열고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가고자 다짐했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전 원로의원 암도 스님, 현 원로의원 성오 스님을 비롯한 진공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제18교구 말사 주지스님과 문도스님 등이 참석했다.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옛날 만암 대종사 다례재 때 문중 어른스님들이 경내에 머물며 다례를 모셨던 기억이 난다”며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준 대덕스님들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주시사암·불자聯 2025년 신년법회

1월 10일 마곡사복지관 3층서



공주시불교계가 한 자리에 모여 2025년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공주시사암연합회(회장 천산 스님)와 공주시불자연합회(회장 이종직)는 1월 10일 공주 마곡사복지관 3층에서 ‘불기2569년 을사년 공주시사암연합회·불자연합회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법어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행복을 일궈야 한다”며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이타’를 행하면서 새해에는 복을 많이 짓자”고 설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태원 스님 “새해 맞아 따뜻한 세상 만들자”

‘삼각산 도선사 어울림 한마당’
1월 14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지역 인사 등 350여 대중 참여


도선사는 1월 14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에서 ‘삼각산 도선사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삼각산 도선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사내 사부대중과 지역사회 이웃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1월 14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에서 ‘삼각산 도선사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년 하례식을 겸해 진행됐으며, 도선사 사부대중과 지역사회 이웃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화합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총무국장 원각 스님, 김학규 직할교구신도회장(도선사 신도회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김영일 도선사 정책자문위원, 김명희 강북구 구의회 의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 국회의원, 박진웅 강북구(을) 당협위원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회장, 조윤섭 강북구의회 부의장 등 35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신년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모두 도선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다.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 확장되길 발원한다”며 “도선사는 언제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행복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도선사 사부대중은 새로운 한 해에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학규 직할교구신도회장은 “지난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대한다”며 “주지 태원 스님을 비롯해 국장스님들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도선사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말했다.

이어 한 해 동안 도선사를 위해 헌신한 신도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우수봉사자 포상식’이 진행됐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최화자·홍남조(관음회) △이행자·안치옥(문수회) △박정자(보현회) △하명애·임길순(지장회) △홍성호(염불봉사단) △김순자(연등공방) △최인정(다도반)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전달하며 신도들을 격려했다.

김민재 기자

익산 이리불교대학 제34기 졸업식

21명 졸업생 배출



익산지역의 유일한 신도전문교육기관인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스님)이 제34기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리불교대학은 1월 12일 익산 관음사 3층 법당에서 제34기 졸업식과 조계종 신도품계 품수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21명의 불자들이 1년 과정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과 ‘부동’ 신도품계를 수지했다.

학장 덕림 스님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다”며 “불교대학을 통해 교리를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익산불교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금강 관음사, 자비의쌀 나눔

명절 前 백미 500kg 전달



금강 관음사(주지 정수 스님)는 1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의쌀 500kg(10kg, 50포대)를 익산시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사진〉

금강 관음사 주지 정수 스님은 “금강 관음사는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이웃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백미를 전달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나눔의 온정이 전달돼 소외이웃이 따듯한 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탁된 백미는 익산시 동산동의 홀몸 어르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이웃 외 지역 취약계층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사찰 브랜드 천연화장품 출시

‘홍매화 스킨케어 세트’ 공개
프랑스와즈 브랜드 협력 개발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1월 12일 ‘화엄사 홍매화 프리미엄 유기농 스킨케어 4종 세트’〈사진〉 출시를 밝혔다.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는 오는 3월 예정된 ‘제5회 구례 화엄사 화엄매(홍매화·들매화) 프로 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에 앞서 대한민국 천연화장품 브랜드 프랑스와즈와 협력한 화장품 세트를 공개했다.

손병규 프랑스와즈 대표는 “프랑스와즈 천연화장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화엄사 홍매화 유기농 천연화장품은 300년 역사를 가진 자연을 피부에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을 거쳐 탄생했다”면서 “유기농 함량을 높인 고품질 홍매화 화장품은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화엄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담은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길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성기홍 화엄가 홍보기획위원장은 “이번에 출시된 화장품은 화엄사 대표 브랜드 ‘홍매화’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된 유기농 천연 성분을 강조한 화장품”이라며 “이것을 시작으로 화엄사의 상징인 홍매화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뷰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4종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는 딥클렌징 오일, 유기농 미스트, 스킨, 에센스로 구성돼 있다.

한편, 화엄사는 비건버거, 녹차 김, 자일리톨 사탕, 냉동김밥 등을 출시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유기농 화장품이 그 대열에 동참해 화엄사 브랜드 파워를 한층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역학교에 장학금

1월 12일 천곡중 · 호계고에 각 300만원 전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이 지역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월 12일 울산지원 대법당에서 정기법회 및 한마음선원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과 천곡중, 호계고와 체결된 장학금 전달 MOU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천주현 신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박라이 울산 천곡중 행정실장과 한현숙 호계고 교장에게 각각 3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날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전달한 장학금은 천곡중과 호계고 학교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 살아생전에 지역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실천해 오고 있다”며 “천곡중학교와 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여러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라이 천곡중 행정실장은 “불자님들의 소중한 마음을 저희 천곡중학교에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서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현숙 호계고등학교 교장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절임에도 잊지 않고 해마다 우리 호계고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반야사, 자비의 쌀 150포 전달

1월 15일 마산 회원구청에



창원 반야사(주지 혜명 스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창원 회원구청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사진〉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과 신도회 임원들은 1월 15일 창원시 회원구청을 방문해 회원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자비의 쌀 150포(10kg 150포, 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도들과 함께 자비의 쌀을 기탁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 반야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비구니스님 된 印 배우…SNS 포교 '활발'

바르카 마단, 출가 13년 차
영화 출연, 연출 등 커리어 접고
달라이라마 가르침 감명, 출가
영적 수행, 지역사회 봉사 헌신

박정현 객원기자


바르카 마단의 출가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 사진출처=로컬 하리야나

뛰어난 연기 재능으로 인기를 휩쓸었던 인도 배우 '바르카 마단(Barkha Madan)'이 출가해 비구니스님이 된 이야기가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올해로 출가한지 13년째인 그가 SNS 상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 큰 영감을 선사해서다.

인도 하리야나주 지역 매체 '로컬 하리야나'는 1월 1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마단이 영화 산업을 떠나 영적인 길로 접어든 과정을 소개했다.

바르카 마단은 1994년 미스 인디아 대회에 참가해 '미스 관광 인디아'로 선정되며 연예계에 진출했다. 이후 인도의 유명 배우 아크샤이 쿠마르(Akshay Kumar)와 함께 액션 영화 'Khiladiyon Ka Khiladi'(1996)를 촬영했고, 공포 고전 영화 'Bhoot'(2003)에도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이후에도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그러던 중 마단은 영화 연출에 도전, 영화 'Soch Lo'(2005)와 'Surkhaab'(2012)의 연출자를 맡았다. 해당 영화들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아 마단은 인도영화계의 명실상부한 유명인사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다.

수많은 영화를 촬영하고 연출하며 커리어를 쌓아오던 마단은 2012년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다. 마단은 2012년 11월 세라 제이 사찰(Sera Jey Monastery)에서 출가해 비구니스님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마단은 영적 수행과 지역 사회 봉사에 헌신했다.

마단의 출가에는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전해진다. 로컬 하리야나는 "마단은 불교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은 후 명상과 자비의 삶을 추구하기로 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했다.

마단은 현재 SNS 상에서 팬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며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컬 하리야나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녀가 배우로서 명예보다 영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적이라며 칭찬한다"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가 성공적인 경력을 뒤로 하고 떠난 것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대중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간 인도 유명인사들 사이에서 영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마음챙김과 자기탐구를 향한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단의 경력과 출가 이야기, 현재의 삶은 현대 사회의 혼란 속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달라이라마, 티베트 강진 피해자 위로 기도회

1월 9일, 인도 사찰서 집전
中 외교부 '경계 성명' 발표


따씨훈뽀 사원에서 대중들과 위로기도를 올리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1월 7일 티베트 자치구에서 강진이 발발해 지역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 이에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1월 9일 망명지인 인도에서 피해자 위로 기도회를 집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7일 오전, 중앙티베트 지역의 시가쩨시 딩리 지구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126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이재민 6만여 명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달라이라마는 보도 당일 즉각 위로 성명을 발표하고 1월 9일 오전 남인도의 따씨훈뽀 사찰에서 위로 기도회를 집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위로성명을 통해 "딩리와 주변 지역을 강타한 참혹한 지진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며 "희생된 분들을 위해 기도 드리며, 부상당한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기도회에는 따씨훈뽀 대중스님들과 망명한 티베트인들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현지 소식통들은 "지진이 일어난 시가쩨에도 따씨훈뽀 사원이 있다.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지도자 판첸 라마의 주석 사찰"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달라이라마가 따씨훈뽀 사찰에 방문 중 티베트 시가쩨에 지진이 일어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달라이라마다 기도회를 집전한 것은 큰 우연"이라고 설명했다. 달라이라마는 약 한달 가량 남인도에 머무르기 위해 1월 5일 빌라쿠피의 따씨훈뽀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달라이라마의 위로 성명을 두고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8일 기자회견에서 '경계 성명'을 발표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 당국은 달라이라마의 위로 성명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면서 "티베트 자치구의 재해는 중앙당의 지도 하에 극복할 것이며, 우리는 달라이라마의 분리주의적 정치 의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대만 불교계, 태풍 피해 태국에 구호품 전달

UN NGO기구 '불교 자비회'
피해지역에 구호품 · 성금 기탁


불교 자비회는 태풍 야기로 인해 피해 입은 이재민에게 집을 재건해주기도 했다.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대만에 본부를 둔 글로벌 자선 인도주의 단체 '불교 자비회(Tzu Chi Foundation)'가 지난해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태국 북부 치앙라이 지역민들에게 구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 도어'는 1월 13일(현지시간) 대만 불자들의 자비나눔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초 발생한 11호 태풍 '야기(YAGI)'는 동남아시아를 휩쓸었다. 야기는 중국,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파괴 흔적을 남기고 소멸했다. 태풍으로 인해 태국민 83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채의 가옥과 인프라가 파괴됐다.

불교 자비회 측은 "치앙라이 린코와 매사이 지구 상황을 즉시 파악해 500개의 구호 물품을 배분함으로써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켰다"면서 "홍수로 인해 많은 마을에 접근이 쉽지 않았지만, 자비회 태국 사무소는 지난 10월 4일부터 4일간 농촌 지역을 조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매사이 지구 관계자는 "매사이를 대표해 불교 자비회의 지원에 감사하며, 따뜻한 후원과 도움의 손길은 우리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힘과 용기를 줬다"고 감사 인사했다.

불교 자비회의 지원을 받은 마이야모 마을의 한 주민도 "홍수로 집과 가게가 파괴돼 절망에 빠져 있었다"며 "불교 자비회에서 제공한 성금은 생명의 끈과 같다. 불교 자비회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내밀어 준 것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불교 자비회는 1966년 대만의 정연 스님에 의해 설립됐다. '자비를 실천에 옮긴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 공인 비정부기구(NGO)로 활동 중이다. 현재 전 세계 51개국에 사무소 432개와 후원자 약 10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주의적 지원, 의료, 교육, 환경 지속 가능성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골든글로브 시상식서 퍼진 "나무묘법연화경"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스페인 배우
일련종 신도…연화경 3회 염송
스님 가사 모티프 드레스 착용도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불교적 가치를 수상소감에 이야기한 영화배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사진출처=USA 투데이

스페인 출신 여배우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묘법연화경"이라고 염송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월 10일 'NBC 뉴스' 'USA 투데이' 등 외신들은 차별에 반대하는 불교 가르침을 전한 수상 연설에 대해 보도했다.

1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벌리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82회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의 배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은 수상 연설에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나무묘법연화경"을 3회 염송했다.

일본불교 종파인 일련종을 믿는 것으로 알려진 가스콘은 이날 스님들의 가사를 모티프로 한 디자인과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불교를 상징하는 색의 의상을 입고 이 자리에 왔다"고 연설을 시작했다.

가스콘은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긴다"며 "누군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폭력을 휘두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존재와 영혼, 정체성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에게 자유를 위해 목소리 높여달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가스콘은 2018년까지 '후안 카를로스 가스콘'이라는 남성 배우로 활동했다. 이후 성전환 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여성 배우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USA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커밍아웃의 불안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당하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산양 가죽신발로 겨울철 맨발 걷기를" 어싱 샤모아 슈즈 2025 신상출시

NEW 신상품

비바미에서 맨발 걷기 신발에 이어
접지신발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설 연휴, 28곳 템플스테이와 함께하세요

문화사업단, 1월 22~30일까지
떡국공양, 만두빚기 등 '다양'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를 맞아 1월 30일까지 전국 사찰 28곳에서 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설날합동차례, 정월 초하루 부처님께 드리는 불교전통세배(통알, 通謁), 떡국공양, 만두빚기, 민속놀이 등이 준비됐다. 하동 쌍계사, 공주 마곡사, 인제 백담사, 양양 낙산사, 예산 수덕사, 담양 용흥사, 남양주 봉선사, 용인 법륜사 등에서 사찰 설날 차례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다.

가족 지인과 함께 설날의 정서를 만끽하고 싶다면 △보은 법주사의 전통놀이체험(윷놀이·공기놀이·성불도) △충주 석종사의 전통놀이체험(오재미·제기차기) △세종 영평사의 민속놀이(떡메질·제기차기·윷놀이) △경주 골굴사의 바닷가 선무도 수련 및 명상 △양양 낙산사의 LED 마음연꽃 등 만들기 △서울 조계사의 만두빚기 및 음식명상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의 알밤떡 만들기 체험 △강화 연등국제선원의 사찰채식김밥 체험 등에 참여해볼 만하다.

영광 불갑사의 선명상, 성주 심원사의 일출명상, 창원 성주사의 싱잉볼 명상, 해남 대흥사의 요가명상, 강화 연등국제선원의 선명상 집중수행, 서울 국제선센터의 법구경 필사 프로그램 등도 한해를 새로 시작하는 데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설날 템플스테이를 통해 가족애를 다지고, 새로운 한해의 원력을 다지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각 사찰별 템플스테이 일정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님들과 불자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출처=문화사업단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 소개
서울	국제선센터	합동차례, 불교전통세배, 떡국공양, 초공양, 108배 염주꿰기 선명상, 새해마음의 양식 법구경 필사, 연꽃등 만들기
서울	조계사	사찰안내, 만두빚기 및 음식명상(1차), 떡국떡 썰기 및 음식명상(2차) 108배, 새벽예불 및 탑돌이
경기 남양주	봉선사	108배 염주만들기, 새벽예불, 설다례 행사
경기 화성	용주사	새벽예불, 새해축원, 범종체험, 불멍/모닥불, 해돋이/둘레길걷기 스님과의 차담, 108배
경기 양주	육지장사	소원 성취 순례길 명상 체험, 소원 등 만들기
경기 용인	법륜사	불교전통세배, 사물체험, 윷놀이, 타종체험, 해맞이 명상, 108배 탑돌이
인천 강화	연등국제선원	선명상 집중 수행, 요가, 사찰음식 체험
강원 양양	낙산사	합동차례, 불교전통세배,, 요가형108배 및 호흡명상 윷놀이, 마음연꽃등 만들기, 파도명상, 차명상, 스님과의 차담
강원 인제	백담사	합동차례, 불교전통세배, 108배, 성불도 게임, 별참 참선 마음의 편지쓰기, 스님과의 차담
충남 공주	마곡사	타종체험, 108배 선명상, 합동차례, 나만의 만다라 색칠하기 나를 돌아보는 108염주 꿰기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새해소망 한지등 만들기, 전통염색체험, 알밤떡 만들기 불멍-새해담짐 마음명상, 조상님께 감사 차례 지내기
충남 예산	수덕사	합동차례, 불교전통세배, 스님과의 차담, 해맞이 암자순례
충북 보은	법주사	불교전통세배, 세조길 포행, 전통놀이 체험(성불도, 윷놀이, 공기놀이) 채식만두 밤참, 108배, 떡국공양
충북 영동	반야사	업장소멸 탑다라니 사경, 성불도 놀이, 예불 및 통알, 편백숲 걷기명상
충북 충주	석종사	합동차례, 설날 떡국 먹기, 민속전통놀이(오재미, 제기차기) 스님과의 차담, 타종체험, 소원108배(소원지 작성 및 단주 팔찌 만들기)
전남 영암	도갑사	사찰안내, 새해연등 만들기, 소원담기, 명상, 새벽예불, 스님과의 차담
전남 담양	용흥사	합동차례, 연꽃등 만들기, 저수지길 포행, 내게 쓰는 편지, 별길 포행 스님과의 차담, 108배 체험
전남 영광	불갑사	합동차례, 불교전통세배, 새벽예불, 소원등 만들기,떡국공양 범종체험, 선명상
전남 완도	신흥사	지역문화(이광사, 이순신, 장보고) 탐색, 일출 보기, 바닷가 포행 108배 및 염주 만들기, 소원등 만들기, 불멍(고구마 구워먹기)
전남 해남	대흥사	합동차례, 만두만들기, 새벽예불, 연꽃등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요가명상, 숲길걷기
전북 고창	선운사	[휴식형] 사찰안내, 예불, 스님과 차담
전북 부안	내소사	전나무숲걷기, 사찰음식체험, 108배와 염주 만들기 나에게 쓰는 편지, 해맞이
경북 경산	선본사	고불식, 사찰안내, 갓바위부처님 참배, 금강경 사경, 108염주만들기,새해연꽃등만들기, 선명상, 새벽예불, 스님과의 차담
경남 창원	성주사	[휴식형] 타종, 싱잉볼명상, 곰숲길 걷기명상, 떡국공양
경남 하동	쌍계사	합동차례, 새벽예불 및 불교전통세배, 주지스님 특별차담) 떡국공양, 사물시현
경북 성주	심원사	[휴식형] 일출 명상, 숲길 명상, 예불 참여, 스님과의 차담
경북 안동	골굴사	[휴식형] 만두빚기(떡만두국),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스님과의 차담 선무도 공연 관람, 바닷가 선무도 수련 및 명상, 실내 선무도 수련
세종	영평사	합동차례, 불교전통세배, 민속놀이(떡메질, 재기차기, 윷놀이) 스님과의 연꽃차담, 새벽예불, 참선(호흡명상)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 전문 강좌 개설

총 30개 강좌 연중 상시 운영
한국어·영어·프랑스어 자막

한국불교 세계화에 기여할 불교 관련 온라인 전문 강좌가 대중을 기다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K학술확산연구소(소장 김종욱)가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K-MOOC)에서 한국불교 관련 강좌 30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K학술확산연구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지원 사원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불교의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성의 글로컬리티'라는 아젠다로 50개 강좌를 제작한다. 기존 운영하던 강좌 20개에 지난해 신규 제작 강좌 10개를 추가해, 올해 총 30개 강좌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10개 강좌는 △한국의 불교문학 △한국불교 문화유산, 국보 △한국불교 스토리텔링(영어 강의, Korean Buddhism through Storytelling) △동아시아 불교사상 키워드 △선의 역사와 문화 △한국불교와 민속의 만남 △동아시아 불교(영어 강의, Buddhism in East Asia) △한국불교와 비즈니스 △승려와 사찰로 본 한국사회 △일본에서 본 한국불교(일본어 강의, 日本から見た韓国仏教)로 구성됐다.

모든 강좌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며, 일본어 강좌는 일본어 자막도 포함하고 있다.

K학술확산연구소 측은 "K-MOOC의 한국불교 관련 강좌들은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 세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의는 불교학과 한국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 K-MOOC 사이트(www.kmooc.kr)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수증도 발급된다. 김내영 기자

북한 불교 금석문 42건 54점 첫 공개

임혜경 학예연구사, '북한 불교 금석문 현황 · 의미' 발표



'묘향산 천주사사적비' 탁본. 사진출처=국립중앙박물관

북한 불교 금석문 171점 조사
자료 96%가 일제강점기 입수
불교사상사 등 연구 지평 넓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북한지역 불교 금석문 145건 171점에 대한 연구 성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미공개 신출자료 42건 54점도 새롭게 소개됐다. 불교 관련 금석문에는 고승의 생애를 기록한 비문과 사찰 창건·중창 기록 등 불교계 운영 전반의 자료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불교사상사, 사원경제사, 불교공예 분야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임혜경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1월 10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국립중앙박물관·한국사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북한지역 불교 금석문' 학술대회 발제자로 나서 북한지역 불교 금석문의 형성 경위와 보존 현황을 발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수집자료 재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3~2024년 2년에 걸쳐 북한지역에 소재하는 금석문 자료 정리 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금석문 소장품에 대한 정리·조사 사업을 기획했고, 우선적으로 불교 관련 금석문을 첫 번째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4년에는 불교 금석문 자료로 145건 171점을 확정하고, 한국사연구회와 협업해 판독·해제 작업을 시행했다. 이 자료는 전량은 탁본과 사본으로 구성됐으며 96%가 일제강점기에 입수된 것이다.

임혜경 학예연구사는 "북한 소재 금석문은 현지 조사가 불가능해, 탁본 자료와 '조선금석총람' 등 기존 금석문 자료집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며 "남북교류 과정에서 공·사적으로 현지 사진이 일부 전해지긴 했지만, 관련 분야 연구에 활기를 제공할 새로운 자료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수백 점에 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 유일본으로,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신출 자료 42건 54점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미공개 신출 자료에는 사찰의 연혁이나 특정 사찰을 중심으로 법맥을 이어간 고승 계보, 사찰 소유 토지의 구체적인 내역에서부터 종명·대증명 같은 공양구의 명문도 포함돼 있다.

주요 신출 자료로는 '묘향산 천주사사적비'를 꼽았다. 평안북도 영변에 위치한 천주사의 토지 획급에 관한 내용을 새긴 것이다. 천주사는 인근 철옹성을 증축하면서 1684년 창건된 사찰로, 승군 지휘소가 설치돼 지역 군사방어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다. 창건 당시 철옹성 안 토지를 천주사에 획급해 준 구체적 내역이 이 비문에 담겨 있어 17세기 말 평안도 지역의 산성 수축과 사찰의 관계, 사찰의 인적 자원을 승군으로 활용했던 모습이 상세히 나타난다.

임혜경 학예연구사는 "보고서와 전국박물관 소장품 검색 데이터베이스(DB)인 'e뮤지엄'을 통해 공개될 금석문 조사연구 성과가 학계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초기불교와 불교윤리학의 세계적 권위자!
불교윤리학 입문
불교는 우리 시대가 대면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가? 전통적 주제부터 AI나 유전자 복제 등 최신 주제까지, 명료한 설명과 풍부한 예시로 풀어낸다.
데미언 키온 저, 조은수 옮김/신국판/무선/216쪽/값 15,000원

시카고대학 출판부의 유명 시리즈!
무에 대한 탐구
무無는 불교의 본질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대 비평이론에서 핵심적 개념이기도 한데, 왜 비평이론과 문화이론에서 불교의 위치는 잘 보이지 않는가?
마커스 분 · 에릭 캐즈딘 · 티머시 모턴 지음, 김용규 옮김/408쪽/값 25,000원

한국불교 현대사의 산 증인, 김재영 법사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60년 동안의 신행과 전법 활동, 소중한 인연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온전히 담긴 이 책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한국 현대불교사의 소중한 기록이다!
김재영 지음/신국판/무선/512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5~1/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화엄경을머금은법성게의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6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2	반야심경수행법강의	남회근,황념조	마하연	7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3	매일108배신자비도량참법	행복문화연구소	붓다스쿨	8	분황원효불교사상사(프라즈냐총서65)철학자원효로보는불교철학사	0.77	운주사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5	아비담마길라잡이(1)아비담맛타상가하	아누룻다/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10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문법해설을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 '보현행원'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이종린 지음
불광출판사 / 2만5천원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입법계품 '보현행원' 강의
보살행, 특별 · 고매한 행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으로 확대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1세기는 굳이 닦지 않더라도 일상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되고, 수행이 그대로 일상 삶이 되는 가르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책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는 '보현행원'이 그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책은 〈화엄경〉의 핵심인 입법계품의 '보현행원'을 깊이 있게 강의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에게 맞춰 10가지 행원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안내하고, 염불이나 위빠사나 같은 다른 수행의 관계도 짚는다.

부처님 말씀의 정수로 알려진 〈화엄경〉은 그 내용이 방대하다. 그럼에도 한문으로 번역된 것만 60, 80, 40권 본 3종이 있다.

보현행원은 개인적 성취(깨달음)와 사회적 책임(보살행)이 같이 가는 가르침이다. '입법계품'의 주인공 선재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한다. 그중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이 전하는 보살도의 실천이자 부처님의 행 10가지가 보현행원이다.

저자는 보현행원의 의의를 "보살행을 특별한 몇 가지 거룩하거나 고매한 행이 아닌,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인도 실천 가능한 보편적인 10가지 행이 화엄의 세계를 열어 준다는 것이다. 공경과 찬탄, 공양, 참회, 남의 공덕을 함께하고, 부처님께 오래도록 이 세상에 머물러 주실 것과 설법을 청하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중생의 뜻을 따르며, 지은 모든 공덕을 회향하는 것, 이러한 보현행원이야말로 차별과 대립을 없애고 모든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게 만드는 삶과 수행의 종착지라고 말한다.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만들었다.

제1장 '〈화엄경〉과 보현행원'에서는 보현행원의 개념과 가치, 보현행원으로 본 〈화엄경〉 사상의 다섯 가지 특징 등을 이야기한다.

제2장 '보현행원'에서는 보현행원의 구성, 기본행원과 응용행원에 대해 소개하고, 제3장 '행과 원'에서는 행원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4장 '보현행원 수행의 기본자세'에서는 행원을 공부할 때 가져야 할 기본자세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5장 '낱낱의 보현행원'에서는 예경제불, 칭찬여래, 광수공양, 참회업장, 수희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불학, 수순중생, 보개회향을 이야기한다.

제6장 '보현행원의 공덕'에서는 경에 설해진 공덕, 필자가 경험한 보현행원의 공덕, 무공덕이 보현행원의 공덕 등 '공덕'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제7장 '보현행원 수행법'에서는 보현행원의 수행법, 기본 마음가짐, 보현행자의 하루 등을 이야기한다.

제8장 '원융회통으로서의 보현행원'에서는 보현행원과 깨달음, 수행으로서의 보현행원, 다른 수행과의 관계 등을 이야기한다.

불교페미니즘으로 재해석한 불교 속 젠더 이슈



붓다, 성과 사랑을 말하다
현경 외 지음
불광출판사 / 2만3천원

효록 스님 · 옥복연 등 전문 9인 참여
성 · 사랑 등 현대인의 실존적 고민들
극복 위한 지혜 부처님 말씀서 찾아
성소수자 불교페미니즘 관점 해석 등

2022년 부탄 불교에서 비구니 승단이 탄생했다. 비구니스님들은 수계 후 비구와 동일한 금색 가사를 입고, 그동안 출입이 금지됐던 법당서 기도를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책 〈붓다, 성과 사랑을 말하다〉는 불교 내 다양한 젠더 이슈를 불교페미니즘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위해 2024년 종교와젠더연구소가 주관한 '불교와 젠더강좌'의 내용을 선별하여 묶은 것이다. 강좌는 급변하는 현대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 사랑 등 실존적 고민들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 불교 교리가 일상과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다.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 9명의 글을 실고 있다. 현경은 '마녀', '이단'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영성을 불교에서 찾았고, 이미령은 경전 속 이야기에서 붓다에게 결혼과 사랑을 질문하고 답을 유추한다. 옥복연은 불교의 서사에서 불교페미니스트 관점의 새로운 가능성을 말하며, 효록 스님은 성적 취향이나 신체적 구조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한 붓다의 견해를 자세히 고찰한다. 책은 총 3부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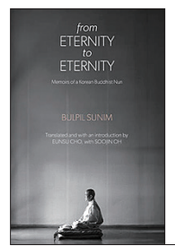
△1부에서는 성과 사랑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본다. 불교의 친여성성을 기반으로 붓다는 페미니스트임을 소개하며, 불교가 제도화된 종교라기보다는 '영성'으로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종교임을 밝힌다. 또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랑과 결혼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을 알아본다.

△2부에서는 한국 불교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본다. 불교가 탄압받던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불교 교단 유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출가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알아보고,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관음보살이 남녀 성을 넘나드는 모습으로 한국과 서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비교분석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성소수자와 관련한 붓다의 가르침을 불교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3부에서는 불교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경전이나 자서전, 불전 미술을 통해 찾아본다. 특히 생명을 만드는 소중한 여성의 생리혈이 가부장성에 오염되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경전에서 살펴본다. 또 간다라 불전 미술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지혜와 자비를 소개한다. 다양한 불교 분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여성성을 지니고 있는 티베트 불교 여성 수행자들의 깨달음의 여정을 통해 여성 수행자들의 우월성도 조명한다.

박재완 기자

불필 스님 자서전 〈영원에서 영원으로〉 영역본 출간



영원에서 영원으로 (영역본)
번역 조은수
미국 뉴욕주립대학 출판부

현대한국불교 비구니계의 대표적 선승으로 불리는 불필 스님의 자서전 〈영원에서 영원으로〉(김영사, 2012)의 영역본 〈From Eternity to Eternity〉가 출간됐다. 번역은 서울대 철학과 조은수 명예교수가 했으며, 뉴욕주립대 출판부에서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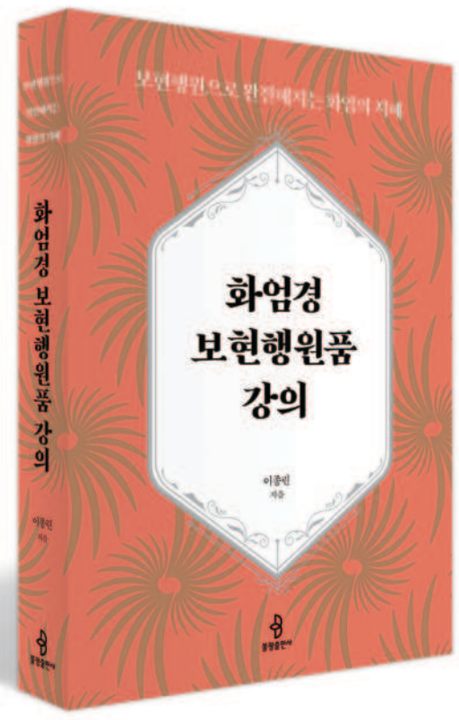
〈영원에서 영원으로〉(From Eternity to Eternity)는 성철 스님의 딸이기도 한 불필 스님의 이야기다. 솔직함과 소박한 유머감각을 담고 있는 이 회고록은 스님의 삶에 대한 기록을 넘어 불교의 사상과 수행 전통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책을 통해 스님의 삶과 한국 선명상과 수행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 볼 수 있다.

영역본 출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의 선불교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불교의 본질과 깨달음에 대한 서구사회의 높은 관심에 비해 그에 관한 텍스트는 많지 않다. 동아시아의 오랜 선불교 전통은 14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무수한 선사들과 어록들을 생산해 냈지만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는 텍스트는 드물다. 아울러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을 소개하고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성철 스님을 서구사회에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책은 한국 현대불교의 한 축인 비구니스님들의 삶과 수행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진정한 삶의 깨달음에 이르고
모든 이들을 이익되게 하는 수행, 보현행원의 모든 것!



모든 강물이 바다에서 모이듯
일체의 수행과 공덕은
보현의 바다에서 하나가 된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보현행원으로 완전해지는 화엄의 지혜

이종린 지음 | 400쪽 | 값 25,000원

이종린_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세간 속에서 해탈 이루리》,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실천 보현행원》이 있다.

밀교 수행 원리의 요점만 가려 모은 티베트불교의 수행 교재
『시이꾸쑴랍쌜된메(因位三身行相明燈)』

바로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불교 금강승 수행 원리의
전모를 밝히다!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경론 번역에 매진 중인
중암 스님이 빚어낸
티베트불교 수행 비법의 모든 것



밀교의 성불 원리
이번 생에 바로 성불하는 티베트불교의 수행법
중암 선혜 역해 | 436쪽 | 양장 | 값 3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모든 苦로부터 자유자재한 실천적 방안



아비담마 실천하기
아신 자나까비왐사 지음
현암 옮김
담앤북스 / 2만원

이해 쉬운 번역과 상세한 주석 달아
전달에 그치지 않고 성찰 이끌어내
"존재 실상 꿰뚫어 보는 것이 본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처님 최상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비담마를 부처님 직설이 아니라고 여기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익을 저버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전하신 최고의 가르침인 아비담마에서 법의 고결함과 수승함을 모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담마 실천하기〉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학승 아신 자나까비왐사(1900~1977)가 1933년 저술한 〈Ko Kyint Abhidhamma〉(영역본명 Abhidhamma in Daily Life)를 우리말로 옮기고 주석을 덧붙인 책이다.

아비담마는 불교의 경(經)·율(律)·논(論) 삼장(三藏) 가운데 논장,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주석과 연구 등을 통틀어 일컫는 것을 말한다. 아비담마는 승법(勝法, 뛰어난 법)이라 불리지만, 복잡한 체계와 생경한 용어로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책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최승대현자(最勝大賢者)' 칭호를 받은 저자가 명료한 설명과 적절한 비유를 곁들여 아비담마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 쓴 것으로, 오래 전부터 '아비담마 지침서'로 평가받았다. 저자는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재와 세계를 통찰하고, 궁극에는 부처님처럼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자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 모습. 현대불교 DB

역자인 현암 스님은 미얀마 국제불교대학과 마하시선원에서 수행정진하며 오랜 기간 불교 철학과 아비담마를 참구하다가 한국 불자들에게 아비담마의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해 이 책을 번역했다.

책은 단순히 아비담마 이론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앎으로써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수행법을 제시해 개인의 실재적 삶에 미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아비담마는 '개념'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의 고정된 사유를 깨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난다'고 표현하지만, 아비담마는 그것을 마음속 '성냄'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보고 그 작용을 마음, 마음부수, 물질로 세분화해 설명한다. 그래서 책에서는 마음, 마음에 결합하는 마음부수, 기질, 10가지 업, 물질, 열반 11가지 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것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준다. 먼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세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대상과 세계를 분명히 보는 눈이 조금씩 확장될 수 있게 구성했다.

아비담마에서는 무조건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기에 선한 행위이더라도 불선한 의도를 갖고 행하면 불선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즉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비담마의 본질이다.

내면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중시하는 현대사회에 〈아비담마 실천하기〉가 던지는 화두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아비담마라는 불교 철학을 깊이 알고자 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역자인 현암 스님은 1999년 삼각산 내원사에서 호암 정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46회) 후 미얀마 국제불교대학과 마하시선원에서 4년간 수행 정진했다. 2020년 동국대학교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초기불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그 밖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봉암사 비명 3기 우리말 완역

〈碑銘〉



봉암사 비명
진범 스님 펴냄
조병활 역주
맑은소리맑은나라
2만5000원

문경 봉암사에 현존하는 탑 3기, '지증 대사 적조 탑비명(통일신라)' '정진 대사 원오 탑비명(고려)' '상봉당 대사 정원 탑비명(조선)'의 비명(碑銘)을 한글로 번역하고 역사적 가치를 연구한 책 〈봉암사 비명〉이 출간됐다.

역주자 조병활 박사는 비명의 원문을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옮겼으며, 비명에 고사와 성어가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상세한 주석을 달았다. 인용문과 원문을 반드시 대조했으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점을 찍어 혼란을 막고, 주석이 있는 역주문과 주석이 없는 역주문을 함께 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지증 대사 적조탑비명'의 역주다. 신라 경명왕 8년(924)에 조성된 이 탑의 비명에 대해 조 박사는 "이 역주가 가장 어려웠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식인(최치원)의 글이라 다르긴 다르다"며 감탄했다. 고운(孤雲) 최치원이 적은 이 비명은 완성까지 8년이 걸렸다. 종교와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문헌에서 채집한 방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고운의 관점이 잘 표현되어 있어 명문으로 평가받는다. 선진시기의 문헌에서 길어온 고사(古事), 위진남북조 시대의 인물과 역사에서 뽑아 온 성어(成語), 불가와 유가, 도가 등 다양한 전적(典籍)에서 추출한 내용, 이들을 융합해 고운 특유의 문체로 표현한 수사(修辭)는 훌륭하다. 또한 '시경' '서경' 등에서 가져온 내용을 정교하게 엮은 표현이 비명에 가득하다. 근세 최고의 석학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석전 스님(石顚, 1870~1948)이 붙인 주석도 주목할 만하다.

이어 고려 광종 16년(965)에 조성된 '정진 대사 원오 탑비명'의 역주다. 정진 대사가 900년부터 924년까지 중국의 강남, 강북 지역에서 수행

상세 주석에 국제표준 표점
인용문과 원문 대조해 소개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 원력

한 내용, 고려 초기의 정세, 정진 대사와 고려 태조, 혜종, 정종, 광종과의 관계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상봉당 대사 정원 탑비명'은 조선 숙종 42년(1716)에 조성됐다. 조 박사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평이했으나 문체나 사조는 앞의 두 비명에 견줄 만하다"고 평가했다.

〈봉암사 비명〉은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의 후원으로 집필·출간됐다. 봉암사 소식지 〈희양산문〉에 실린 글을 새로 정리했다. 비명을 통해 봉암사 건립의 내력과 연혁을 전하고, 지증 대사, 정진 대사, 상봉 대사의 수행과 한국 불교사를 조명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원불교 학술총서 22·23·24권

선과 유식



선과 유식
다케무라 마키오 지음
권서용 옮김
운주사
2만3천원

유식불교는 인도 대승불교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로, 미륵에 의해서 정초되고 세친에 의해서 완성된 인도 교학불교의 최종 열매이다. 한편 선불교는 초조인 달마로부터 중국의 육조 혜능에 의해 완성된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대표적인 수행불교이다. 그렇다면 선불교와 유식불교는 전혀 다른 것인가?

책 〈선과 유식〉은 불교의 중요한 두 가지 사유체계이자 수행체계인 유식불교와 선불교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이 둘을 바라보는 중도적 관점에 대해 설명한다. 상반된 입장인 듯한 선과 유식이 대승불교라는 큰 흐름 안에서 같은 지향과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한다.

박재완 기자

무에 대한 탐구



무에 대한 탐구
마커스 분 · 에릭 캐즈딘 · 티머시 모턴 지음
김용규 번역
운주사
2만5천원

"왜 비평이론과 문화이론에서 불교의 위치는 잘 보이지 않는가?" 책 〈무에 대한 탐구〉는 비평이론과 문화이론을 전공한 세 명의 저자가 불교가 오늘날의 비평이론과 문화이론, 나아가서 현실정치적 맥락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추적한다.

비평이론에서 불교의 '무(無)', 즉 공(空)의 이론적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불교와 비평이론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실제로 부딪혀온 현실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적응력이 있는지를 탐구한다.

불교에 대한 고전적, 문헌학적 연구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비평이론의 장에서 불교의 역할을 탐구한다.

박재완 기자

불교윤리학 입문



불교윤리학 입문
데미언 키온 지음
조은수 옮김
운주사
1만5천원

'불교윤리학'은 '불교'와 '윤리학'이라는 독립된 두 분야가 만나 새롭게 형성되어 최근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지적 탐구의 한 분야이다. 이 책은 영국의 불교학자로 초기불교와 불교윤리학 부문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데미언 키온 교수가 쓴 불교윤리학 입문서다.

첫 장에서는 서양 현대윤리학의 이론 전통에 비추어 불교의 도덕이론에 대해 어떤 해석과 평가가 가능한지를 비교하고, 제2장에서는 동서윤리의 특징과 차이점 및 유사성에 대해 비교한다. 제3장부터 8장에 걸쳐서는 동물과 환경, 성과 젠더, 전쟁과 폭력과 테러리즘, 낙태, 자살과 안락사, 유전자 복제 등 가장 최근에 등장한 윤리적 주제를 탐구한다.

박재완 기자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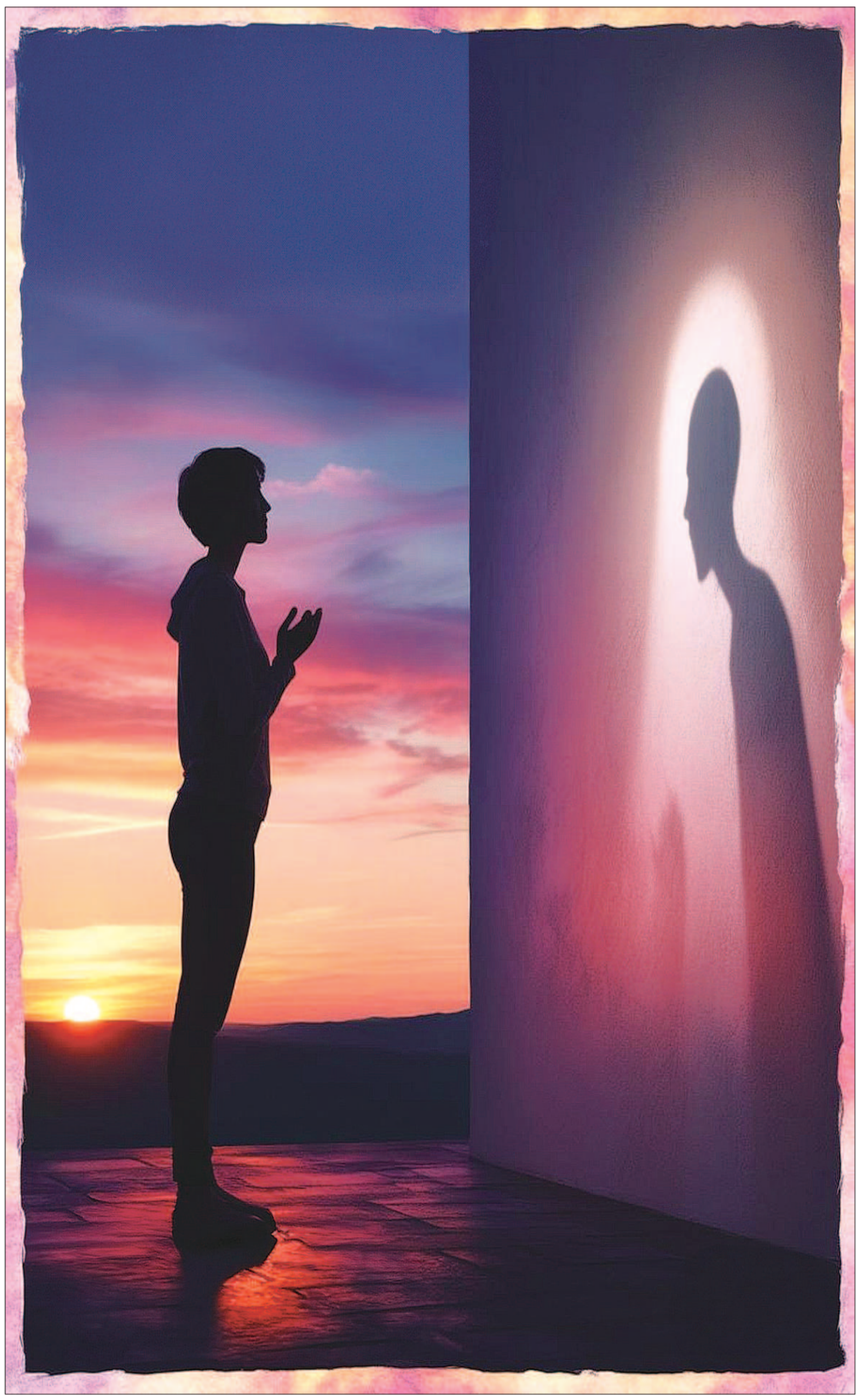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④ 업을 변화하려면



▶한줄 요약
진정으로 좋은 삶과 바람직한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 속의 업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잘못된 업이 나의 팔자를 결정하고, 삶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내 안의 업을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업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업(본체)의 그림자.
진정 좋은 삶(인연)을 원하거든
내 안에 있는 업(짱임)의 모습부터 바꾸어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사실상 내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을 불교에서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六根)'이라 하며, 이 육근은 외부의 대상을 감지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대상, 즉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기억을 육경(六境)이라 부르고, 육근과 육경이 만나 알아차리게 되는 것을 '육식(六識)'이라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입니다.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보았을 때, 그것이 나무로 인식되는 것은 나무라는 정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도, 그 사람이 본래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좋은 감정이 그 사람에게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경험한 苦樂들은 업의 산물**
> **결국 세상만사는 나의 마음에 달려**
> **좋은 삶을 원한다면 업부터 바꿔야**
> **선명상, 업을 변화하는 강력한 도구**
> **마음 본질 이해해 나를 변화시켜라**

결국 세상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이고,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 설명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즐거움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 역시 모두 내가 만든 업(業)의 산물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삶과 바람직한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 속의 업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잘못된 업이 나의 팔자를 결정하고, 삶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내 안의 업을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명상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관찰하며, 집착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돕습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마음의 고요를 찾아가는 습관은 나의 업을 점차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 안의 업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는 단지 이론이 아닌 실제 삶의 원리입니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명상]
세상사 모두 내 마음의 거울.
모두가 인과(因果)의 강이 되어 흐르고
이것(苦)과 저것(樂)의 물결은 엎치락뒤치락.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감정)의 파도는 과연 무엇인가?

앞서 마음의 기본 모양인 육근(六根)과 육경(六境), 육식(六識)에 대해 설명했듯이,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모습은 18계(界)라는 체계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이루어진 6근과 그것이 감지하는 대상인 6경, 그리고 이를 알아채는 6식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세계를 의미합니다. 18계는 우리의 마음속 세계와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불교의 중요한 논리이며, 그 안에서 세상사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혀로 맛을 알며,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생각으로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정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볼 때 그것이 나무로 인식되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이미 나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거울임을 보여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因果)입니다. 인과는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넘어서, 모든 현상이 상대적으로 서로 의존하며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 역시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괴로움이 다가오며, 괴로움을 피하려 하면 즐거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는 감정이 상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즉 기분은 오온(五蘊) 중 수온(受蘊)에 해당하며, 고수(苦受), 낙수(樂受), 사수(捨受)의 삼수작용(三受作用)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행동하고, 기분 나쁜 것을 피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업(業)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감정을 쫓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할수록, 그에 따른 더 큰 괴로움이 반드시 과보로 다가옵니다. 이는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기보다는, 감정을 관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선명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선명상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파도를 고요히 들여다보게 하고, 감정을 넘어서는 지혜를 키울 수 있게 합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중도를 실천하며, 인과의 이치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정을.. 마음을.. 잘 살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NEW 신상품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재영 붓다빠리사 학교 지도법사



무원 김재영 법사는…1938년 마산에서 출생. 마산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이후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김동화 박사에게 배우고(문학석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이후 지금까지 동방불교대학 교수로 '현대포교론'을 강의하고 있다. 1970년 동덕불교학생회를 창립한 이래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청소년 청년 대학생 중심의 '청보리운동'을 전개해왔다. 〈보리지〉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출간했고 '연꽃들의 행진' '붓다의 메아리' '판소리 불타전' 등을 통해 1970년~80년대 한국불교 중흥운동을 견인해왔다. 현재 붓다스터디-빠리사 학교의 지도법사로 있다.

"죽음 두려워 않는 '보살'로 돌아와 '전법'하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다른 길로 한번 샐 법도 하건만. 그는 한눈팔지 않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꼬박 60년을 바쳤다. 1970~80년대, 한국불교 전법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김재영(86) 법사다. 그는 동덕여고 전교생 절반이 불교 동아리에 가입한 '동덕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부터 전법사 운동 '붓다빠리사 학교'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종횡무진 활약했다. 그런 그가 최근 불교 인생 60년을 담아낸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를 펴냈다. 그의 일생에 거친 전법 이야기를 듣기 위해 1월 13일, 조계사 카페 '베이커리 조'에서 그를 만났다. 깔끔한 차림의 노신사는 환한 미소와 함께 60년 소회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60년 동안 전법 말고 다른 길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미친 사람이죠. 하지만 그게 제 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칭찬해 주고 싶네요. 장하다 김 법사!"

이처럼 김재영 법사의 전법 열망은 보통 사람 이상이었다. 도대체 어떤 인연이 그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전법으로 이끌었을까. 부처님도, 스님도, 경전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건 어느 날 엄습한 '죽음'의 공포였다.

'죽음'에서 시작된 佛緣

고1 겨울방학이었다. 김 법사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떡하고?" 등 막연히 찾아온 죽음의 공포에 밤낮을 설쳤다. 그를 덮친 죽음의 공포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점차 일상생활도 피폐해져갔다. 몸에 '검은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은 망상에 시달렸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와 곧장 냇가로 달려가 돌로 연신 몸을 문질렀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의 공포는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갔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967년 가을, 김재영 법사는 동덕여고 역사 교사가 됐지만, 여전히 죽음의 공포로 몸서리쳤다. 불안함에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학교 도서실에 다다랐다. 창문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에서 한 권을 들어올렸다. 그저 손이 갔을 뿐, 의도하지 않았다. 집어 든 책은 〈법구경〉이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간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나니 마음으로 어둔 것을 생각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리."

이유는 모르겠지만, 〈법구경〉 한 구절을 읽으니 죽음의 공포가 말끔히 씻겨져 나간 느낌이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자 불교가 궁금해졌다. 이후 김 법사는 불교에 미친 사람처럼 공부했다. 하루면 다 읽을 〈법구경〉을 3개월에 걸쳐 읽었다. 하나라도 놓칠새라 구절 구절, 단어 단어를 꼭꼭 씹었다. 이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자유와 해탈의 길이라고 확신했다. 김재영 법사의 불연(佛緣)은 그렇게 시작됐다.

전법의 기적을 일으키다

동덕여고 선생님으로 '역사'를 가르치던 어느날이었다. 학생들은 역사 교사인 김 법사에게 원효 대사 등 불교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김 법사는 그런 학생들이 기특해 누구보다 자세하게 불교를 설명했다. 김 법사의 친절한 설명은 1970년 6월, 그의 삶을, 아니 한국불교 역사를 바꿀 사건이 불러왔다.

"선생님! 우리도 불교반 만들고 싶어요. 개신교반, 가톨릭반은 있는데 불교반만 없단 말이예요. 불교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고3 학생들이 김 법사를 찾아와 한 말이다. 갑작스러운 제의에 당황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우선 회원 모집을 위해 불교를 알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김 법사는 부처님의 생애가 담긴 한국불교 최초의 청소년 불교 학습지 〈보리지〉를 직접 제작하고 배포했다.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학생들을 위한 작업이라 생각하니 고되지 않았다. 여법한 창립법회를 위해 법사스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아는 스님이 별로 없었던 김 법사는

60년 '전법 · 포교 한 길'
동덕불교학생회 법사로
1970~80년대 포교 개척
'한국불교 중흥' 이끌어

회고록 속 나오는 '不死'
생과 생을 반복하면서
이웃들을 도우러 오는
'보살의 삶'을 의미해

일단 서울 조계사로 무작정 달려갔다. 당시 조계사에는 무진장(혜명) 스님이 법문 중이었다. 초청법사가 되어달라는 김 법사의 간절한 부탁에 무진장 스님도 흔쾌히 허락했다.

김 법사의 전법 열정에 학생들도 힘을 보탰다. 학생들은 직접 '전법단'을 꾸렸다. 반마다 생겨난 전법단은 〈보리지〉를 신입생 손에 쥐어주며 가입을 권유했다.

김 법사와 학생들의 노력은 결국 빛을 발했다. 1971년 동덕불교학생회 창립법회 당일, 200여 명의 학생들이 하나 둘 교내 시청각실로 모여들었다. 점차 입소문을 타자,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창립 10여 년 만인 1978년 동덕여고 전교생 1600명 중 1000여 명이 가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불교사에 유래없는 사건이었다.

동덕불교학생회는 한국불교 중흥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고등학교부터 불교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학생들은 각 대학에 가서도 불교 동아리를 세워 자발적 활동을 지속했다. 청년 불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찰도 함께 발맞췄다. 서울 대원정사, 청룡사 등 사찰들이 청소년·청년 법회를 개설하고 청년불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김 법사는 "그때 청소년·청년 법회가 없는 사찰이 없었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동덕여고 동창회였다"며 "학생들이 없었다면 이뤄낼 수 없는 기적이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 자발적 동기, 눈물과 기도가 맺어낸 '전법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의 열정은 '문화'로도 뻗었다. 부처님을 쉽고 재밌게 전할 방법으로 제격이었다. 곧바로 김 법사는 학생들을 모아 '연꽃들의 행진' 청소년 축제를 기획했다. 백팔합창단, 연극, 만화 전시까지 풍성한 문화 한마당을 열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문화포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1987년에는 불광법회의 요청으로 부처님 생애를 주제로 한 판소리, 〈불타전〉을 만들기도 했다. 김 법사가 직접 사설(辭說)을 쓰고 안숙선 명창이 작창했다. 김 법사는 '수행'과 '신격화'에 치중한 나머지, 퇴색된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부처님 생애를 통해 다시금 전하고 싶었다.

"천민부터 왕족까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 시대에 재현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춤추고 어울리며 '부처님처럼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부처님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김 법사의 전법 여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퇴직 후 2014년 '붓다빠리사 학교'를 시작한 그는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붓다 석가모니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내건 붓다빠리사 학교의 강의는 학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 현재까지 84여 명의 전법사를 양성·배출했다.

배출된 빠리사학교 법사들은 서울, 수원, 김해, 포천, 춘천, 부산, 김제 등 전국에서 법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 확산에 진력하고 있다. 군부대, 교도소, 탈북민 모임 등 포교 사각지대에 놓인 곳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무료급식소 봉사에 참여하는 등 보살행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부처님 삶에 있는 '不死'

김재영 법사의 60년 회고록 제목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다. 김 법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불사' 따위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살'로 돌아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험한 벌판길 함께 가는 길동무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누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느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네"라는 한 불경 구절을 소개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그게 몇 번, 몇 생이라도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불사(不死)라는 의미다. 김재영 법사 역시 언제라도 이 세상으로 돌아와 '보살'로 살아갈 수 있길 서원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보살행입니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허리 아픈 사람에게 파스 한 장 선물하세요. 불사(不死)도 전법도 그 속에,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동덕불교학생회 창립법회.



녹야원 초전법륜탑에서 정진 중인 김재영 법사와 불자들.



동덕불교학생회가 주축이 된 청소년 축제 '연꽃들의 행진'.



김재영 법사가 이끌고 있는 '붓다스터디-빠리사 학교'.

자비 24시 ❶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 곳곳의 소외계층을 살펴 그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불교계 역시 자비와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인적 · 물적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 국민 복지에 이바지한다. 2025년 현대불교신문은 '자비24시'를 통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한국 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서울 종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웅 스님)는 어르신들의 활발한 문화 생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만난 이학제(81) 씨 역시 센터의 통기타 동아리 회장으로 2년 반째 활동 중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안 탑골미술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도슨트로 활약하고 있다.



센터 내 북카페는 이용자들의 인기 공간으로, 어르신들이 모여 대화를 나눈다.

'문화'로 서울 노인복지 이끌다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노인시설
국내 최대 규모 노인 복지 공간
노인 눈높이 맞춘 '탑골미술관'
서울노인영화제 간판 프로그램
동아리 통해 주체적 활동 지원
상담 · 취업 복지서비스도 인기
지웅스님 "노인공동체 구현 노력"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어르신이 주인공인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어르신 도슨트가 그림을 설명하는 '탑골미술관',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일구는 '노인 동아리'….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이 곳, 서울 종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웅 스님). 미술관, 상담센터, 식당 등 센터 곳곳에서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추위와 외로움이 아닌 온기와 행복이 가득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또래 이웃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랑방이다.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장소였던 탑골공원이 서울시 주도 성역화가 진행되자 이들은 또 다른 공간을 찾아야 했다. 이에 2001년 탑골공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 복지시설이기도 한 이곳은 '더 이상한 복지관'이라는 미션을 갖고 있다. 어르신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차별적이고 독특하며 이상적인 관점을 지향해 언제나 새로운 노인 복지의 지평을 열자는 취지다. 선배시민인 노인이 참여하고 배우며 나누는 광장으로써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노인문제해결'과 '노인문화발전'을 좌표 삼아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 복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본관, 분관, 별관으로 구분돼 다양한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본관에서는 약 70여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어르신 일자리 안내 등이 이뤄진다. 별관에서는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취업알선사업을 통해 어르신 상담과 어르신 취업의 전문 영역 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분관에서는 바둑·장기 교실, 체력단련실, 탑골작은도서관을 비롯한 취미·여가 프로그램과 영화·요리 교실 등 넓은 영역의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간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이용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다.

올해 5월에 17회를 맞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어르신 권익 향상과 세대 간 소통, 어르신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제17회 영화제는 국내외 총 198편의 영화가 공모됐다. 특히 미국, 인도, 대만 등 총 53개국에서 다양한 장르의 노인 영화를 출품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17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한 어르신은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서는 나 말고도 다른 국내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 기대가 크다"라며 "영화제에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관람해 '노인의 삶'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또 다른 특별함은 '탑골미술관'에 있다. 센터의 정문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돌아서면 미술관 입구가 나타난다. 흔히 미술관은 고급문화로 여겨지기 마련이지만 탑골미술관은 어르신들이 예술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도슨트 전문교육을 거친 '실버 도슨트'가 직접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술작품을 설명하고 청년들에게는 세대 간 작품 해석의 차이를 경험하게 한다.

탑골미술관 실버 도슨트 5년 차 김영환(66) 씨는 도슨트 활동을 통해 인생의 2막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원래 대학병원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며 예술의 'ㅇ'자도 모르고 지냈는데 은퇴 후 실버 도슨트 활동을 시작하자 예술에 대한 식견이 높아지고 삶의 즐거움이 커졌다"면서 "도슨트 활동과 더불어 복지센터의 바둑 교실에도 참여 중이다. 은퇴 후 삶이 더욱 행복하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이어 김 씨는 "노인들에게서 많은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 복지서비스가 더욱 많아지면 사회가 더욱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히 서울노인복지센터와 같은 노인 문화 복지가 널리 퍼져 전국의 노인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는 그들이 주도적으로 일구는 동아리만 25개다. 음악, 스포츠, 미술, 인문, 미디어 등 분야를 아우르는 동아리 부원은 약 500여 명. 이용자가 직접 강사가 되고 학생이 돼 이끌어간다.

25개 동아리 중 통기타 동아리를 창립한 이학제(81) 씨는 "2018년부터 센터를 이용해오던 중 2022년에 우연히 동아리 개설이 가능한 것을 알고 20명을 모집해 시작했다"며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구를 사귀는 등 대인관계 폭이 넓어져 이용자들이 좋아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쉼터이자 삶의 공간으로 어르신들이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복지 수혜에 큰 기여를 한 '탑골공원 복지정보센터' 활성화를 추진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주도로 2024년 4월 탑골공원 북문 옆에서 문을 연 '복지정보센터'는 서울 곳곳에서 온 어르신들에게 각 지역구 복지 소식을 전하고 필요한 정서·법률 상담도 제공했다. 무료급식, 복지정책, 심리상담 등의 갖은 정보를 안내하는 이곳에는 개소 5개월만에 어르신 7000여명이 방문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 스님은 복지정보센터의 중요성을 힘줘 말했다.

"탑골공원은 그동안 하나의 '노인공동체'로 작동해왔습니다. 노숙인, 독거어르신 등 많은 분들이 한 곳에만 있으니 우울해져 또래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곳이 탑골공원이죠. 공원의 성역화로 인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지자 이 분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복지정보센터'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할 권리를 위해 2025년에도 복지정보센터를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 스님



Q. 서울노인복지센터 취임 후 이루신 주요 성과는?

A. 취임 후 탑골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이 서울시 노인복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함께 '탑골공원 복지정보센터' 구축 등을 이뤄냈어요. 또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지원, 교육·취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관계망 형성에도 기여했습니다.

Q. 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방침이 있으신지.

A.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례관리학회 등 기관의 포럼 및 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권합니다. 사회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방침이죠. 1인 평균 45시간 이상의 외부교육을 지원하고 연간 1~3회의 직원연수를 통해 복지사 간 연대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Q. 센터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A. 취임하면서 센터를 '잘 먹고, 잘 놀고, 잘 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잘 먹고'는 어르신들에게 위생과 균형이 잡힌 식사를 대접하는 것, '잘 놀고'는 평생교육과 취미·교양·정서 등을 지원하는 것, '잘 가는'은 '웰다잉(Well-Dying)'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심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중입니다.

Q.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지역에서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A. 센터 이용자 분들에게 우리 센터는 '최고의 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센터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기찬 공간이길 바라고, 지역사회에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선배시민의 면모를 갖추게 돕는 센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16호 | 15 | 전면광고

그 성질이 인자하고 부드럽고 온화하면
현인이나 우인이나 모두 따르고, 탐심 많고
거칠면 사람도 짐승도 모두 멀리 떠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원주림》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건평 : 150평 외
- 매가 : 20억
- 부지 : 160평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위치 : 부산포교원
- 5층건물에 4층
- 보2000/70만원, 권리1000만
- 면적 : 60평실평
- 전철역 출구앞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요양원 2층 180평(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법당, 산신각 20평/요사채 50평
- 창건 50년
- 가액 : 2억9000만원

010-2369-33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대동안길 32번지 해동선원
- 신축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사리전 나한전 용왕당
- 총 290평 및 국유지 720평
- 가액 3억 6000만원

010-3596-00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총평수: 380평
- 대웅전, 산신, 용왕, 노천 해수관음상
- 요사채 30평(현대식 부엌)
- 매매 전세 가능

010-8409-824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시장 옆
- 1층 법당 外 약 60평
- 보증금 6000만원
  월 세 120만원
  (별도 2,3층 복형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 규모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3억 5000만원

010-5316-56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16호 | 16 | 전면광고

여래의 가르침을 항상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항상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는 언제나 행복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반니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 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 무속인, 법사, 무당, 일반인, 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교의식(행사대행)

사찰의 모든 행사
원하시는대로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영산재 이수자 연암당
010-6219-4757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서울 포교원 할 분

서울 강서구 목동사거리 시장 옆
30평 보 1백만원 월 45만원

공양주 부전 할 분 쓸 분

결혼 할 분 결혼정보 있음
서울 명동결혼에서

010-5381-141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육임AI 순회 효능 설명회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탈종공고

• 사찰명 : 제주도 무량사
• 주 지 : 영오 스님 (속명 : 양두영)
• 주 소 : 제주시 계명길 25-1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② 장충단공원 – 〈법화경〉 방편을 버리고 진실로

불자에게는 불교만이 진실이다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공자나 노자와 불법이 일치한다고 하는 삿된 생각을 분명히 버려야 한다.

–도겐, 〈정법안장〉, '사선비구'



장충단비. 뒤로 동국대학교 방향 출구가 보인다.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동국대학교를 산책하는 길은 남산의 중턱을 등반하는 과정이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학교 중문을 향한 언덕길이 일출처럼 드러난다. 연등축제를 위해 학교를 찾아온 불자들은 한 번쯤 보았을 풍경이다. 그런데 옆으로 시선을 옮기면 부처님의 세계인 학교로 오르는 언덕과는 다른 장충단공원이라는 공자의 평평한 세계가 펼쳐진다. 장충단은 불교를 박해하고 유교를 숭상한 이조(李朝)를 위해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이다.

불교에서 산과 평지에는 여러 함의가 있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중심은 수미산이라 하는데 아래로는 욕계에서 위로는 색계, 무색계(무색계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서 방위가 없지만 비유적으로 수미산의 정상이라고 한다)에 이르는 큰 산이다. 욕계정에서 무색계로의 선정이 깊어지는 건 수미산의 정상에 이르는 것으로 비유된다. 반대로 〈무량수경〉에 따르면 극락은 산과 언덕이 없고 평지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극락에도 수미산이 있는가는 여러 가지로 논의되지만, 나는 극락에 태어나면 수행의 계위가 확정되기에 수미산이라는 점진적 수행구조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극락이 평지로 구성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극락은 사바의 안티테제 아닌가? 사바의 땅에서 열심히 정진하여 수미산의 정상,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처정에 오르더라도 선정의 힘이 다하면 하산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극락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극락에 태어나면 수미산을 오르는 등산은 없다. 그곳에 태어난 것이 바로 사바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유가행파, 즉 자은종의 조사인 현장은 제자 규기의 전언에 따르면 극락의 대중은 보살수행의 열 단계 중 여덟 번째인 불퇴전지라고 했다 한다. 부처님을 이루는데 더 이상 퇴보가 없는, 즉 성불이 확정된 단계만이 극락에 간다고 본 것이다.

현장, 유가 무수한 순간 거쳐 닦아
수행에 기반한 수미산 등정을 선택
가르침은 방편에 불과 진실은 하나

이처럼 현장은 극락을 포기하고 수미산의 중턱, 색계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랐다. 자신의 근기로는 도저히 불퇴전지의 보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법장보살이 세운 한 번에서 열 번 정도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에 섭수하신다는 십념왕생원이나 극락의 대중에 수없이 많은 성문이 있다는 성문무량원을 배제했음을 말한다. 그에게 아미타불의 본원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아니라 방편이다. 현장에게 염불과 같은 걷기 쉬운 평지의 길로 험난한 불도를 성취하는 것은 용기를 주기 위한 방편이지 진실은 아니다. 그는 그래서 솔직하게 사바의 중턱에 남고자 했다.

그런데 앞서 규기의 전언이라 했듯이 현장의 저술에는 서역구법의 여행기 외에 저술이 없다. 오직 그는 인도의 경전만을 번역했다. 그런데 어떻게 일종(一宗)의 조사라는 사람이 주장, 즉 종취(宗趣)가 없다니. 나는 현장이 조사인 이유는 당시 중국에 널리 퍼진 염불하면 손가락 튕기는 한 순간 서쪽 10만억 국토를 넘어 드넓은 평원인 극락에 왕생한다는 신앙을 방편으로 버리고, 유가행파의 유가(선정)를 점진적으로 무수한 순간에 거쳐 닦아 수미산을 등반한다는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의 후예들은 극락왕생의 정토종과 말법에 심취한 삼계교 등과 무수한 마찰을 겪으며 진실이 무엇인지 결택하려 서로 개성을 더해갔다. 현장은 방편과는 섞일 수 없는 진실이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그가 굳이 자신만의 독립된 철학을 전개하지 않았어도 일종의 조사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이다.

방편은 버려야 한다. 진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방편을 부여잡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방편과 진실의 관계를 설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법화경〉에서 방편이 긍정적 의미인 줄 안다. 사실 〈법화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에는 선택을 해야만 함이다. 그동안의 가르침은 방편이었고, 진실은 하나임을 현장처럼 선택하라는 것이다. 유명한 화택삼계의 비유에서도 장자가 불타는 집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 자식들을 위해 거기서 나오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양 수레, 사슴 수레, 큰 흰 소 수레를 준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수레는 큰 흰 소 수레, 대백우거밖에 없었다. 다른 수레는 처음부터 준비된 적도 없던 것이다. 아무리 자식이 다른 수레를 갖고 싶더라도 사실 가질 수 없다. 이 대백우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화택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타죽을 뿐이다. 선택지는 세 개가 아니다. 대백우거냐 화택이냐의 이지선다이다. 나는 화택삼계의 비유를 이렇게 읽는다.

보통 유가행파는 〈법화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는 유가행파의 계승자인 현장을 〈법화경〉의 사람이라 생각한다. 현장이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대백우거는 점진적 수행에 기반한 수미산의 등정이었고, 극락으로 가는 평평하고 빠른 범부의 길은 양, 사슴의 수레였다. 현장에게 사실 그런 길은 없는 것이다. 그에게 빠르고 평평한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은 화택에 남겠다는 말이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식의 도리를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염불을 부르짖은 중국 정토종의 성자인 선도에게는 이것이 역(逆)이었을 뿐이다.

이같이 불교 안에서도 대백우거가 무엇인지 조사들은 상불경보살이 되어 다른 이에게 진실을 크게 소리치고 다녔다. 부처님의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불교 안에서도 이런데 그 밖의 종교야 말할 것도 없다. 가끔 모든 종교는 사실 같다고 하는 사람도 보이고, 불교와 유·도교를 묶어 기독교와는 다른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보인다. 그런 생각을 접할 때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진실은 하나이고 이를 알고 난 이후에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불자에게는 불교만이 진실이다.

그런데 사실은 방편에 남는 것이 편한 일이다. 상불경은 다른 사람에게 시끄럽다며 박해받기 때문이다. 상불경은 방편이라는 평지에 남지 않고 언덕으로 바위를 짊어 올리는 시시포스처럼 진실이라는 바위를 짊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한가로운 산책자임에도 장충단공원을 배회하지 않고 바로 학교로의 언덕을 오르는 일은 나에게 방편을 버리고 진실로 들어가는 걸음이 된다.

〈동국대 박사〉

'무진장' 창고 만든 삼계교
창고 열어 빈민을 구휼하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④ 삼계교 창시자 신행 선사 (2)

수(隋)의 통일(589)을 눈앞에 두고 벌어지는 5호 16국의 피비린내 나는 각축전은 관리들의 타락과 인심의 황폐로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조세에 시달린 민중들은 귀족이나 사찰로 몸을 맡기게 됐고, 삼계교도 폭정에 떠나온 유민(流民)들을 대상으로 교세를 넓혔습니다.

실제, 나라와 사회가 온통 부패와 타락의 몸살을 앓을 5호 16국의 정국에서 내 몸 하나 헌신하여 민중을 위하겠다는 종파는 오로지 '삼계교'뿐이 없었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13개의 불교 종파 모두 붓다가 깨친 교설을 인용하며 깨달음과 수행의 논리 속에서 운운했지만, 민중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수행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는 진심으로 생각한 불교 종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계교를 창시한 신행 선사(540~594)의 시선은 오탁악세를 살아가고 있는 범부들에게 있었습니다. 말법시대의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한 신행 선사는 삼계교를 통해 다양한 불사를 펼칩니다.

우선, 삼계교는 '경제적 관점'으로 대중에게 접근합니다. 당시 민중에게 경제란 무엇일까요. 하루 동안 노동하고 3끼를 먹고, 일을 마치면 집안에 누워 하루의 피로를 풀고, 다시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행 선사는 삼계교의 교의에 따라 '무진(無盡, 다 함이 없는)'이라는 '무진장(無盡藏, 다함이 없는 창고)'을 설치하고 빈민의 구제와 동시에 사산(寺産)을 구축해 사원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무진장의 출처는 〈화엄경〉 〈유마경〉 〈대집〉 등의 대승경전에 나타나있는 무진, 무진장에 있습니다. 이는 위로는 삼보와 아래로는 빈민에 보시해 결함이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삼계교의 중심 실천 교리인 '대승무진장행'의 출처도 이에 기인합니다.

원래 무진장의 의미는, '율전'과 '경전'의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경전의 의미는 앞서 살폈고, 율전에서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디 원시불교 교단에서는, 출가 비구들이 생산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상좌(上座)와 대중부(大衆部)로 갈리면서, 대승불교의 발전으로 금지되었던 경제문제에 보다 원활한 융통성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율전' 〈십송율〉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탑을 세우는 법이란 다음과 같다. 급고독거사가 부처님 전에 이르러, '세존께서 유행하실 때면 저는 세존을 뵐 수 없어서 몹시 애가 탑니다. 제가 공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물건이라도 내려주십시오' 하니, 부처님께서는 '거사여, 그대는 이 손톱과 머리카락에 공양하라'고 하셨다. 그러자 거사는 '제가 그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시는 탑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했다. 이를 세존께서 곧 윤허하시니, 이것을 탑을 세우는 법이라고 한다."(기탑법, 起塔法)

이렇게 탑에 올린 공양물은 다함이 없다(塔無盡物)라는 것을 들어, '비야리'의 여러 상인들이 탑에 올린 공양물을 출자해, 그 이익금으로 탑을 공양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십송율〉 조항은 탑지(塔地)·탑법(塔法)의 구체적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사찰의 재산은 이자를 취해도 좋고, 창고에 여유가 있거나 향유가 남는다면 팔아 무진재(無盡財)에 넣어도 좋다고 부처님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율전인 〈근본설일체유부비내야〉에서는, "세존께 '만일 승가를 위해서라면 응당히 이윤을 구해야 합니다'라 이르니, 세존은 '신심 있는 거사들로 하여금 불법승을 위한 무진물(物)을 삼보에 보시하여 응당히 회전(回轉)시켜, 그 이익을 구하여 이물(利物)을 얻어 삼보전에 회향하여 공양을 지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송림사 주지〉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❷ 대한–제주 길을 걷다



▶한줄 요약
그 어떤 것도 허락이 필요치 않고, 무슨 일이라도 탈 없이 이루어지는 시간. 바로 제주의 '신구간' 문화다. '신구간'은 대한이 시작된 후 5일째부터 입춘 2일 전까지 7일간의 시간을 말한다. 신구 교체가 이루어지는 찰나의 '프리 패스' 기간인 셈이다. 겨울을 마무리하고 새봄을 맞는 변화와 신생의 시간. 대한이 가면 입춘이 온다. 봄은 그렇게 이 아름다운 신들의 섬 제주로 돌아올 것이다.

겨울 끝자락, 新生의 봄을 기다린다

반복되는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며 한 해를 채워가는 것. 차곡차곡 쌓이는 그 성실한 여정만큼 고귀한 삶의 반석은 없다. 하지만 새로이 돌아오는 절기를 가늠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을 조금 더 친밀하게 체감하는 기분이 든다.

다음 목적지에 들어서기 전 언제 코너를 돌아야 하고, 비록 지금 조금 숨이 차고 고되어도 며칠 뒤엔 저 고개 넘어 햇살 가득한 땅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것 말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절기와 절기 사이의 틈새에서 시작한다. 한해의 마지막 절기가 저물고, 다시 새로운 문이 열리는 희망과 가능성의 시간. 푸른 바다와 검은 돌, 그리고 1만 8천 신들의 고향. 저 아름다운 탐라의 땅에만 허락된 '신구간'을 찾아 떠난다.



한라산과 함께 제주를 상징하는 아름답고 신령한 산, 성산일출봉. 거대한 성과 같은 그 모습에 '성산(城山)', 해가 뜨는 모습이 장관이라 하여 '일출봉(日出峰)'이라 했다.

신구간이 돌아온다

혹시 이 땅의 신들이 모두 부재해 버린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 그 어떤 것도 허락이 필요치 않고, 무슨 일이라도 탈 없이 이루어지는 시간. 바로 제주의 '신구간' 문화다.

'신구간'은 '신구세관교승기간(新舊歲官交承期間)'의 줄임말로, 대한이 시작된 후 5일째부터 입춘 2일 전까지 7일간의 시간을 말한다. 이 시기는 세상의 모든 신이 옥황상제께 보고를 올리기 위해 하늘로 오르고, 또 아직 새로 임명받지 못한 신들은 내려오지 않은 공석의 시간. 말 그대로 신구 교체가 이루어지는 찰나의 '프리 패스' 기간인 셈이다.

제주의 신구간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1737년(영조 13)에 지백원이 지은 〈천기대요(天機大要)〉의 '세관교승'이라는 항목에도 신구간과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선조의 신주를 옮겨도 흉상을 꺼리지 않아도 되고, 집을 짓거나 묘를 옮기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나쁠 것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주에서의 신구간 문화는 육지의 그것보다 더욱 강하고, 견고하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제주 민간에서는 집수리, 이사 등은 언제나 이 '신구간'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 외의 기간에 이러한 일을 벌이면 큰 '동티'가 난다고 말이다.

하지만 신구간을 마냥 민간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도 곤란할 듯하다. 기온이 따뜻한 제주에서 평균 5도 이하인 날은 한해 8일이 채 되지 않는데, 바로 그때가 신구간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

영하의 날씨가 드문 제주에서 세균 번식이 잦아드는 신구간에만 통시(화장실)와 외양간의 수리, 묘소 이장, 벌목, 이사 등이 주로 이루어진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변소 관련의 동티가 대개 눈아피(眼病)로 나타났다는 것은 세균 감염을 무시할 수 없다.

'오뉴월에는 아진 방석도 못 고쳐안나(오뉴월에는 앉은 방석도 못 옮겨 앉는다)'는 제주 속담은 고온다습한 날씨에 더위를 먹거나, 질병을 막으려는 이른바 '동티 예방'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따지고 보면 제주를 넘어, 뭍에서도 유념해야 할 필수 수칙인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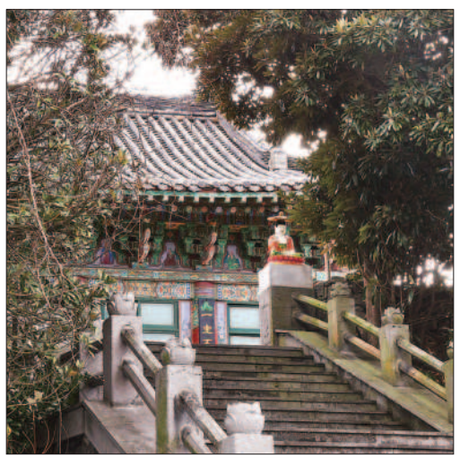
어머니 여신에게서

신들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섬. 그 수가 하도 많아 에둘러 1만 8천. 제주는 이 땅의 신화와 민간신앙의 원형이 가장 생생히 남아있는 보물창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칠고 예견할 수 없는 자연, 그보다 더 혹독했던 이 섬의 설움 많은 역사 속에서 제주의 사람들은 세상 모든 신에게 의지하고 또 위로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땅을 지킨 것이 어디 1만 8천 신뿐이랴.

제주시에 자리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구좌읍에 자리한 '제주해녀박물관'에서는 제주를 대표하는 신화,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온몸으로 일궈온 제주 여성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는 제주섬 탄생 신화의 주인공인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한 발은 성산일출봉에, 또 한발은 관탈섬에 걸쳐질 만큼 거대한 여신이었다. 하지만 아들들인 오백장군을 먹이기 위해 밤낮 죽을 끓이다가 가마솥에 빠졌다는 이야기에선 고단한 제주 여성들의 삶과 닮아있는 '어머니 여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1934년, 일제의 칼날 같은 압제 바람 속에서 성산 마을 사람들은 성산일출봉 앞에 절터를 마련하고 불사를 시작해 동암사를 창건했다.



'제주해녀박물관'에는 이 땅의 역사를 온몸으로 일궈온 제주 여성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 섬과 바다, 가정을 지킨 초인적 삶의 바탕에는 기도가 있었다.

제주 사람들에게 오곡 씨앗을 전해준 농경의 여신 '자청비', 여성을 향한 차별과 한계를 이기고 자신의 운명을 멋지게 개척한 '감은장아기', 바다 건너에서부터 오곡과 가축을 전해 탐라의 개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벽랑국의 세 공주. 제주 여성의 강한 생명력은 태고의 여신에게서부터 전해진 자질일 것이다.

제주를 지킨 힘

제주의 세운 것이 여신들이라면, 제주를 지켜온 것은 바로 보통의 여성들이다.

조선 시대부터 부역과 진상을 피해 수많은 남자가 섬을 떠나면서 급격히 줄어든 인구. 그나마 뱃일을 하던 남성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 부지기수였던 과거. 사람이 줄어도 부역은 줄지 않았기에 육지에선 볼 수 없는 여성 군졸 문화가 생겨났고, 아무리 힘들어도 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출륙금지령으로 제주 여성들은 오롯이 이 섬을 먹이고, 지키고, 살려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크게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제주해녀박물관'에서는 그 생생한 역사를 더욱 체감할 수 있다. '평생 해녀로 살았다'는 것은 물질 하나로 우주를 살렸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제주의 여성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항일 운동가로, 전후 망가진 제주를 재건한 선구자로, 제주에서 독도까지 우리의 섬과 바다를 지키며 초인적 삶을 살아냈다.

아이를 낳고 3일 만에 바다로 돌아갔다는 어느 해녀 할망, 그리고 추운 겨우내 분화구에서 소 떼를 품고 지켜냈다는 성산일출봉의 역사는 왜인지 닮아있다.

한라산과 함께 제주를 상징하는 아름답고 신령한 산, 성산일출봉. 거대한 성과 같은 그 모습에 '성산(城山)', 해가 뜨는 모습이 장관이라 하여 '일출봉(日出峰)'이라 했다.

성산일출봉에 앞에 다다르면 우거진 나무 뒤로 단정한 기와지붕 하나가 눈에 띈다. 바로 오랜 시간 성산의 곁에서 제주 사람들과 함께 한 사찰, 동암사(한국불교태고종)다.

봄은 온다

가는 곳마다 절이 있고, 그만큼 불교와 토속신앙이 어우러진 당집도 많아 '절 오백, 당 오백'이라 했던 제주.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훼불'을 넘어 '멸불'에 가까운 탄압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4·3의 비극을 거치며 제주불교의 역사는 휘청거렸다. 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결코 불교를 놓지 않았고, 스님들 또한 그 손을 놓지 않고 서로를 지켜낸 것.

동암사는 1934년 성산 마을 주민들이 절터를 마련하고, 불사를 시작하여 창건된 사찰이다. 일제가 황국신민화 정책을 내세우며 제주의 땅과 바다를 헤집고, 저 성산일출봉을 참호삼아 죽음의 무기들을 옮겨 나르던 시절. 하지만 그 칼날 같은 압제의 바람도 사람들의 불심을 꺾진 못한 것이다. 그 모든 영락의 계절은 지나, 지금껏 동암사는 성산과 제주의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머문다. 휘황하고 담장 높은 문대신, 겨울에도 푸르른 제주의 나무들을 대문 삼아 누구라도 반기며.

소한과 대한 사이의 어디 즈음, 제주에 눈보라와 강풍이 몰아치던 날. 성산일출봉에는 관광객들이 바람에 몸을 휘청이면서도 삼삼오오 바다 전망대 앞에 모여 섰다. 그때 "저기 해녀가 있다!"하고 누군가 외치는 소리. 그것은 해녀를 만난 기쁨이라기보다, 놀라움과 경의에 가까운 외침이었을 것이다.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해녀의 삶.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신의 세계와 가장 맞닿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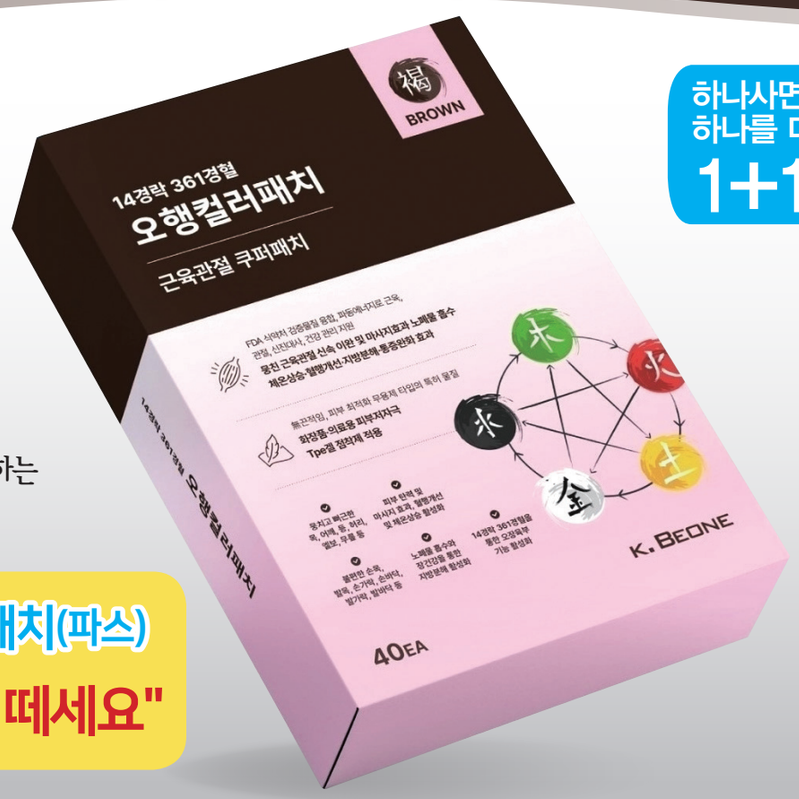
겨울을 마무리하고 새봄을 맞는 변화와 신생의 시간. 대한이 가면 입춘이 온다. 봄은 그렇게 이 아름다운 신들의 섬으로 돌아올 것이다. 바람을 타고, 저 바다 여신들의 숨비소리와 함께.

〈작가〉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이 핵심적인 나라는 것부터 돌아다볼 줄 알아야 한다

질문자1(남) 큰스님께서는 불법의 공부 과정을 삼 단계로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참나의 발견, 즉 자아의 발견과 완성, 둘째는 모두와 하나가 되는 것, 즉 전체 속에 자기가 있음을, 셋째는 이런 수행을 거쳐 보살도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둔한 저희들은 평소 큰스님의 법문을 통하여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아 왔지만 아직까지 미혹한 가운데 있습니다. 차제에 이 삼 단계의 공부 과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얼른 와닿지 않나 봐요. 닿는 분들도 계시고 안 닿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것을 이름해서 '삼정지각 불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니 잘 참작해서 들으세요. 육위법도 있고, 팔정법도 있고, 십이지법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떠나서, 그것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다 모두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키기를 이렇게 했죠. 처음에 일차적으로도 죽어야 나를 볼 수가 있고, 이차도 죽어야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알고, 셋째도 죽어야 나하고 둘이 아닌, 바로 나툼을 알 수 있어서 구경경지를 이룬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랬죠? 내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바로 나로 인해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벌어진 거니까 나를 다스리면서, 바깥의 경계도 내면에 놓고 내면의 경계도 바로 그 안에 놔라,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무조건 용광로에다 헌쇠 넣듯 놓아라. 나를 이끌고 가고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곳은 거기니까 모든 것은 거기서 하게끔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거기 놔라."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발견해서 보는 단계가 되고, 나를 보는 단계에서는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또 놓고 가되, 안에서 어떠한 뜻이 오더라도, 무엇을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할 거는 하되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맹종하지는 말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발견한 뒤에 나를 넓혀서 생사윤회에도 끄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안의 경계가 있습니다. 안의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맹종하지 말고 누가 되지 않는 일은 듣고 누가 되는 일은 듣지 말고 버려라. 아니, 버린다기보다 듣지 말고, 하여튼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해서 거기 또 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의 경계에 맹종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안으로 기울어지고, 밖에서 끄달리고 또 밖으로 떨어진다면 밖의 경계에 기울어지는 것이니까 안으로나 밖으로나 맹종하지 말고, 모든 이치를 눈으로 보고 듣고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해서 결정을 짓는데, 그 양면은 다 거기에 총괄이 돼서 그대로 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경계나 망상이나 이런 것에 끄달리지 않고, 그대로 생각하면서도 걸림이 없이 그대로 자기가 주장자를 올바로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공부라고 보겠습니다.

셋째 번에는 둘이 아닌 까닭을 알았기 때문에 둘이 아닌 나툼을 나툰다고 했습니다. 그 나툼이라는 것은 열반계를 말하죠. 즉 말하자면 '열반각지', '구경각지'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경각지는 어떠한 것이 구경각지냐. 여러분 이름이 많으시죠?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 사위라는 이름도 있고,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고, 또는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 형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우라는 이름도 있고, 할아버지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또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이름이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서, 예를 들어 아들과 만나면 아버지의 생각과 행과 말이 아주 선연하게 선명하게 나갈 수 있도록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뜻도, '모든 게 내가 없고 남이 없다' 하는 것은 일체가 나 아님이 없고, 일체가 내 도량 아님이 없고, 일체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고 중생 아님이 없이 모두가 한자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도 없는 것이 부처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릇 따라서, 예를 들어 종지에 응해 달라면 종지가 돼 버리고 사발에 응해 달라면 사발이 돼 버리십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달마 대사가 구렁이가 됐다가 금방 달마 대사가 됐던 겁니다. 그처럼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서는 아무 병도 없다는데 나는 죽겠습니다." 또 "병원에서 몇 달 못 산다고 합니다." 또는 "어디가 아픈데, 몸져눕지도 않고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부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바깥으로 끄달리며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천차만별로, 그릇대로 주어지듯이 그렇게 많죠. 그럼 사생의 그 인연 된 것을 볼 때 인간 사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체가 바로 한데 합쳐진 게 일체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구렁이가 '나를 구원해 주시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마음이 구렁이 속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모든 문을 활짝 여시고선 그거를 안아들인다면 두드러지지도 않으면서 자기 모습이 바로 그게 돼 버려요. 구렁이가 돼 버리죠. 이 사람이 건져 달라고 할 땐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이 건져 달라고 할 땐 저 사람이 되고, 또 돼지가 살려 달라고 할 땐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가, 소 속으로 들어갔다 말 속으로 들어갔다 또 하다못해 풀 속으로도 들어갔다, 나무 속으로도 들어갔다 목신도 되고, 구더기 속으로 들어가서 구더기도 되고 이러니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열반구경지', '구경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삼계를 통달했다 이 얘깁니다, 삼계를. 나의 삼심을 통달해서 삼계를 통달했다. 과거심이나 현재심, 미래심을 다 통달해서 과거 세계, 현재 세계, 미래 세계를 다 통달했다. 그래서 자유자재한다. 그래서 어느 사람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벌레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목신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지신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용신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다. 일체의 만물만생 어떠한 것이든 그 가지각색으로 헤아릴 수 없이 내가 됐다가 또 이게 됐다가, 화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됐을 때에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라고 할 수 없는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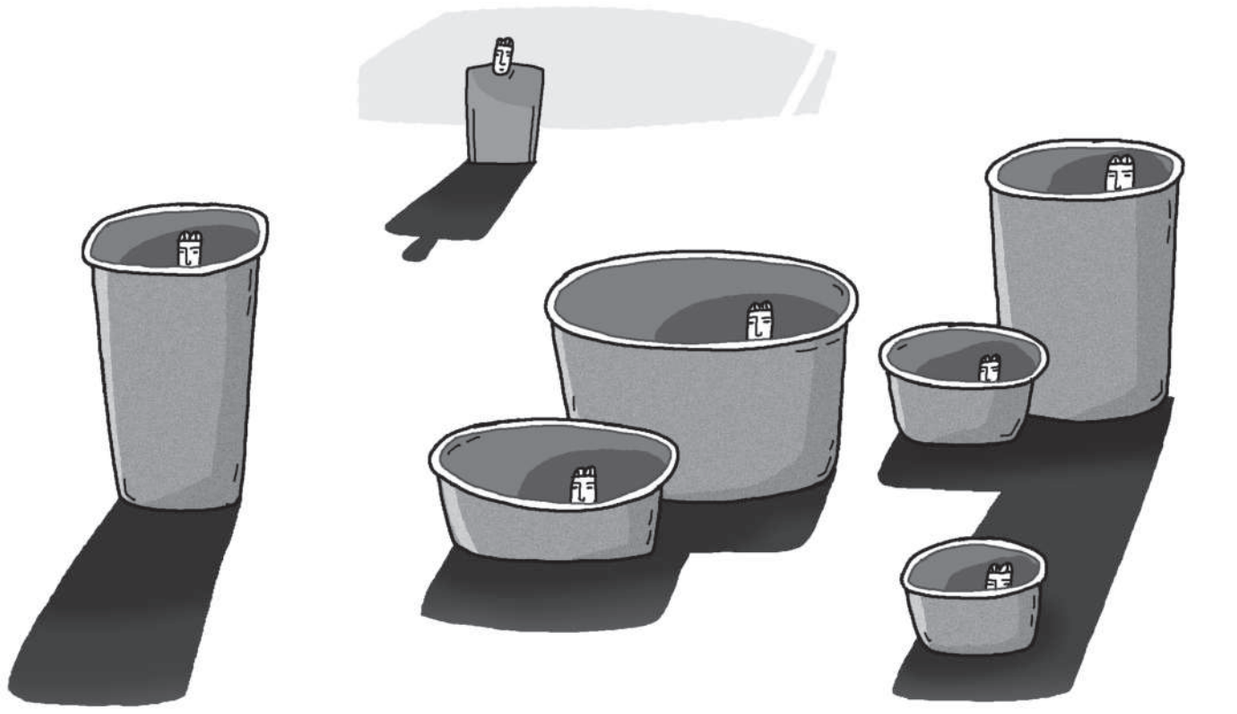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용광로에 헌쇠 넣듯 놓아라

☞ 19면에서 계속

것이기에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경경지라고 할 수 있는 각(覺)을 이루어서, 그 마음이 무심의 도리인 중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유인이 되려면 우리가 바로 '삼정지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삼 단계가 통달돼야죠. 그것은 내 마음에서 십이인연법이니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론적으로 하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생각은 체가 없어서 저 바깥에 나가는 것도, 문지방 넘어가는 것도 한 찰나죠. 앞뒤 뚫린 텅 빈 그 불바퀴 속을 서슴없이 들고 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그대로 자유스럽게 들고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처럼 경을 많이 읽었거나 또는 경의 용어를 쓴다거나 이럴 줄을 몰라서 좀 답답하시겠죠. 그러나 우주 천하가 그대로 큰 불바퀴, 작은 불바퀴, 둘이 아닌 그 불바퀴가 그대로 극명하게 과학적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보니,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말씀하셨어도 지금 현재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말씀했더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 법이 돼서 끊임없이, 끝 간 데 없이 여러분과 더불어 언제나 함이 없이 하고 계신 그 사실을 여러분도 증명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당신, 즉 말하자면, 자기로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오셨으니까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 있으니까 상대성 원리로서의 일체 만법을, 독불장군이 아니라 공심으로서 공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공용을 할 때 찰나찰나 변하면서 찰나찰나 화하면서, 찰나찰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끊어짐이 없이, 그렇게 우리는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충만히 두루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학적으로 친다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세 단계의 문제가 사람에게는 아주 극치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내가 짊어지고 나왔으니까 없고, 미래는 가지 않았으니까 없고, 이 짊어진 거는 붙을 자리가 없어서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고정됨이 없고 몸뚱이도 돌아가는 게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으니 어떤 것을 먹을 때, 어떤 것을 만날 때, 어떤 것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말할 때, 어떤 것을 볼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렇게 변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찰나로 변해서,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로, 입자에서 수많은 입자가 화해서 바로 분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모습, 마음, 말, 뜻으로 응해 주시는 그 천백억화신의 뜻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그 주인은 바로 몸뚱이 속의 중생들 의식을 다 끌고 다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삼 단계의 자유인이 되는 길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 단계의 그 모든 이치를 생각할 때, 지금 놓으란 말은 재차 하는 소리지, 여러분이 지금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모르니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꾸자꾸. 착을 두고 욕심내고 아집이나 아상으로 모든 일을 '내가 했다' 하고 돌아가니까 이거는 어렵게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났다가,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이 사람을 만났다가 금방 저 사람을 만나고…, 둘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뚜렷하다 이 소립니다. 전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어느 불이나 불은 똑같지만 전구는 각각이듯이.

그럼으로써 그 도리를 삼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나눴어도 나중에 결국 삼계를 통달한다면 모두 그대로 요리할 수 있어서 삼 단계가 삼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서 삼 단계가 삼 단계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삼 단계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너도 아니요, 모두가 아닐 때에, 나 아님이 없다는 도리가 거기에서 선명하게 나올 수 있고 그때에는 바로 말없이 이거냐 저거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내면세계로 둬야 옳으냐 바깥 세계로 둬야 옳으냐, 이론이 맞느냐 마음이냐, 이런 것도 다 통달하게 되어 그런 것도 말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이법은, 예를 들어서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할 때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스위치를 누를 때에 "불을 켜야 옳겠습니까, 안 켜야 옳겠습니까?" 그러고 불을 켭니까? 안 그러시겠죠?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벌써 전등이 모두 가설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불만 켤 뿐입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물이 떨어졌으면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걸레 갖다가 훔치는 것뿐입니다.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아무 소리 없이, 목마르니까 급하니까 그저 냉장고 문 열고 그냥 먹거나 "나, 물 좀 줘." 이래서 그냥 물을 먹을 뿐이지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 달라는데 이유가 뭐가 붙느냐 이겁니다. 내가 먹어야 옳으냐, 안 먹어야 옳으냐 하고 누구더러 물어보고 합니까? 그리고 물더러 또 물어봅니까? 내가 너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러고 물어보고 먹습니까?

> **목마르면 그냥 물 먹듯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붙지 않는 데서, 나라는 걸 세우지 않는 데서**
> **바로 구경경지를 이루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그냥 먹는 것입니다.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붙지 않는 데서, 나라는 걸 세우지 않는 데서, 바로 구경경지를 이루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관습에 의해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목석이지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서 그대로 참선이 돼야죠. 좌선을 한다고 앉았다, 몇 시간을 좌선을 한다, 이건 좌선이 아닙니다. 또 좌선을 하고 일어나서 "아휴, 오늘은 하루 종일 좌선을 여덟 시간이나 했어." 이렇게 아주 제일 잘한 것처럼 그래도 그것은 아니죠. 일분일초도, 하지 않았다 했다 하는 소리 없이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참선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말 그대로 그것이 좌선이요, 참선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서 이리 왈 저리 왈 끄달림이 없어야죠. 아무리 마음이 망상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관여함이 없이 '응, 그래?' 하고 마음이 일어나는 걸 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그 마음이 참선이죠. 여러 마음들이 나오더라도 '아, 이 마음, 그래 그래, 그럴 테지.' 하면서, 수많은 의식이 다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저 여기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데, 지켜보면서 옳은 거는 옳은 것대로 그른 거는 그른 것대로 다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게끔 다 몰아서 넣는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올바른 지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 지금 보십시오. 모두가 이 마음 핵심이 수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치라든가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 모두가 그저 누구 말마따나 마음 일어나는 대로 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나라는 것부터 돌아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할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강도질은 누가 시켰으며 선행은 누가 시켰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거기 놓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러한 핵심을 뚫어서 수행하도록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젊은층들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자기가 핵심적인 문제를 수행하고 가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학 문도 넓히지 못하죠. 나오는 문은 좁히고 들어가는 문은 넓혀야 하고, 또 기술계의 고등학생들도 기술 방면에서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월급 주는 것도 학력보다는 기술이나 능력대로 지급이 된다면 대학을 들어가려고 기를 쓰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부정부패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이게 다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넓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소리를 이렇게 듣고 흔들리고 저렇게 듣고 흔들리고, 바깥으로만 끄달리는 관습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처리들을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달픈 역사를 가져온 것도 그 탓입니다, 바로. 불교를 등한시하고 유교를 중시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끄달리고 관습에 얽매여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한 역사를 짊어진 채 앞으로 재정 문제라든가 공업 문제라든가 의학 문제라든가, 또는 과학 문제라든가 천체물리학 문제라든가 천문학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전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근본을 돌워 주고 근본의 수행을 시켜서 앞으로 해 나가는 일들이 분야마다 한마음 속에서 나투어지게끔 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의학 분야라면 유무를 한데 합쳐서 해 나간다면 그거는 제일가는 의사일 것입니다. 법신이자 의사죠.

그러니 모든 분야가 하나하나 정신노동, 정신의학, 정신과학…, 모두 정신으로 돌아가야죠. 마음으로부터, 정신계로부터 하단계로 하달이 돼서 우리가 출중하게 해 나갈 수 있다면 부정부패 이런 문제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질없는 싸움들은 안 할 겁니다, 아마. 일체를 자기로 보게 된다면 싸워 봤자 자기를 죽이는 건데…, 남을 물에다 끌어 놓으려면 자기도 물에 들어가야만이 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 죽이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과학이 발전이 되어 기계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로보트로 한다 하더라도 자기와 남을 더불어 살릴 수 있고 이익하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이는 기계만 만들고 핵무기나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보존할 수 있는,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구요.

그러니 아까 삼 단계의 문제, 바로 삼 단계가 삼 단계가 아닌 도리로 삼 단계도 없고 일 단계도 없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대로 여러분이 자기 탄생을 한다면, 삼계를 모두 통달할 수 있으며, 바로 삼계를 통달했다는 이름도 없는 그런 통달이 된다면 바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그 구경경지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2월 3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② '전면의 집중점'에 머물기

집중의 사마타로 '나' 없는 곳에 이르다

존재에서 벗어나 자유롭기 위한 수행의 시작으로 받게 된 화두. 화두를 왜 받아야 하는지 또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지난 연재①에서 언급했다. 그 첫 단계를 '①(자기자신에 대한) 자각의 불을 밝힌다(이 뭣고?) → ②진정한 마음으로 의문을 낸다(화두의 지속) → ③갑갑한 덩어리의 형성(의단 또는 율극봉, 집중점의 확보)'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집중점이 확보되면, 이제 오롯이 집중하는 것만 남았다.

오롯이 '계속' 집중하기

가슴 한가운데에 갑갑한 느낌이 있는 곳(의단)에 마음을 두고 집중을 한다. 망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대로 다시 집중점으로 돌아온다. 망상은 끈질기게 일어나지만, 다시 끈질기게 집중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한다. 나의 수행은 화두 타파라는 사마타 수행에서 시작했기에, 우선 여기서는 (망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일어남과 사라짐의 과정 전체를 관觀하는) 위빠사나 수행과는 망상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붙여놓고 오롯하게 집중하는 수행을 사마타 수행이라 한다. 그 대상이 화두이건, 염불이건, 호흡이건, 아랫배의 느낌이건, 붓다 시대의 40가지 사마타 주제이건,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는 방식이라면 모두 사마타 수행이다.

간화선의 경우, 화두를 통해 의도적으로 집중점을 만들어 그것을 집중 대상으로 삼는 방식을 택한다. 가슴 한가운데 형성된 의단에 마음을 한참 집중하다 보니, 그것을 기점으로 약 40~50센티의 앞쪽 '전면에 집중점'이 자연스레 확보된다.

이 '전면의 집중점'에 계속 집중을 하니, 몸의 경계가 없어져서 그 집중점이 몸 안인지 밖인지 분별이 없어지고, 그냥 허공 속에 그 지점만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6차크라(가슴 차크라)에 해당하는 지점이었다. 계속 집중을 이어가니 '망상'과 '집중'을 왔다 갔다 하던 마음의 비례가 점점 '집중' 쪽으로 더 기울어진다.



전면의 집중점에 지속으로 집중하면 빛이 발생한다.

사마타로 대상 집중하면
'초월의식' 체험하게 돼

'집중점 잡기' 삼매로 가는 입구

좌선을 시작한 지 첫 8시간 정도는 불안정한 집중을 안착시키는 과정이었다. 중간중간에 다리를 풀기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잠깐 새우잠도 잤지만, 중요한 것은 집중 대상을 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앉은 지 9시간을 넘어가니 마음이 잡도리하는 시간보다 대상에 집중된 시간이 많아지고, 집중력에 가속도가 붙어 밀도 높은 집중도를 이어가게 된다. 이렇게 집중도가 확 높아졌을 때는, 몸이고 뭐고 목숨마저 거추장스러운 듯, 단 1초도 집중을 놓치고 싶지 않아 가속 페달을 밟는다. 그러면, 좌선한 지 약 10시간째부터 12시간이 되는 사이에, 집중 대상과 하나가 되는 일련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집중 대상에 지속으로 몰입하니 거기서 빛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불투명한 하얀 빛이었다가 이것이 점점 더 하얗고 투명해지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빛은 몰입의 강도에 따라 그 밀도와 크기가 달라졌다. 마음을 계속 대상에 붙여두니, 대상은 빛이 되고 마음은 빛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나'는 없다. 가슴의 집중점 부위가 뻥 뚫려 빈 공간으로 느껴진다. 내가 없는 것이 신기해 잠깐 집중에서 나올 때 급히 몸을 더듬어 보기도 한다.

사마타의 메커니즘, 무(無)와 하나됨

붓다의 수행법은 '정(定)+혜(慧)'로 집약되는데, '정'에 해당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고, '혜'에 해당하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 몰입하므로서 온 '의식'을 그것에 지속으로 붙여 놓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의식'이 머무름에 따라, 항시 '나'에게 붙어 있는 '의식'이, '하나의 대상' 쪽으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의식이 '내'게 붙어 있지 않고, 대상에 붙어 있으니, '내가 없다'고 느낀다. 대신, 마음은 집중 대상과 하나가 된다.

어떤 대상이건 계속 집중을 하면, 빛이 발생하고 투명하게 되고, 결국 집중하는 주체와 집중 대상인 객체, 모두를 넘어서는 초월의식(우주의식 또는 바탕의식)을 맛보게 된다.

평생을 '나, 나, 나'에게만 집착했는데, 갑자기 나를 담고 있는 광활한 허공(바탕 자리)에 눈뜨게 된다. 있는 것(有)만 보다가 없는 것, '무(無)의 이미지'에 눈뜨게 된다. 평생을 '내'게 붙어있던 '의식'이, 비로소 '나'와 분리되니 이렇게 자유롭고 시원할 수가 없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② 상품명과 성분명 설명

이름은 달라도 같은 약입니다

"약사 양반, 타이레놀 주이소."

"타이레놀은 무슨 증상 때문에 드시려구요?"

"아니. 두통."

"아! 머리가 아파서 드시려는 건가요?"

"아니. 두통!!"

"그러니까 어르신. 두통이 머리가 아프시다는 뜻이죠? 머리가 어떻게 아프신지…."

손님은 한심하게 나를 쳐다보며 손가락 두 개를 V자로 펴 보이며 소리질렀다.

"아니, 두 통 달라고, 두 통!!"

이 이야기는 내가 겪은 실화이지만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유명한 두통약에 관련된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다.

약국에서는 왜 달라는 약을 안 주면서, 자꾸 똑같다며 다른 약을 권하는가?

누구나 겪어보았고, 또 불편한 기분이 들었던 그 상황에 관한 이야기이다.

약에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상품명과 성분명이란 것이다.

상품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이레놀, 게보린, 판콜, 판피린 같은 제품의 이름이며, 성분명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약 성분의 이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이라고 알고 있는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여기서 타이레놀이 상품명이며, 아세트아미노펜이 성분명인 것이다.

많은 제약회사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성분명으로 가진 진통제를 만들어 판매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제품명이 타이레놀이며, 그와 같은 성분을 가진 제품들이 타세놀, 타이놀, 타이펜, 마하펜, 탁센아세트아미노펜처럼 각자의 제품명을 가지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쉽게 말해 이름과 껍데기는 다르지만, 알맹이는 같은 제품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밤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셀 수 없이 많다고 오해하진 마시길 바란다. 내가 사는 울산은 공업 도시여서 그런지 밤하늘에 별이 수십 개밖에 안 보일 때가 많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타이레놀을 찾았을 때 약사가 다른 제품을 건네며 같은 약이라고 말한다면 대뜸 의심이 먼저 들게 마련이다.



같은 성분, 다른 이름 약 多
'성분'이 같으면 동일한 제품

'이 약사가 날 속이는 것은 아닐까?'

유명한 제품을 찾고 선호하는 것은 개개인의 취향이며, 또한 제한된 정보 속에서 진통제라고 하면 광고에서 보아 익숙한 제품인 타이레놀, 펜잘, 게보린 같은 제품을 떠올리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찾았을 때 약사가 다른 제품을 내놓으며 똑같은 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부디 불쾌해하지 마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약국이라는 좁고 한정된 공간에 모든 제약회사에서 출시된 수많은 약을 전부 구비 해 둘 수는 없으므로 같은 성분명을 가진 약은 한, 두 종류만 준비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중 당신이 찾는 제품이 없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약사가 같은 성분명을 가진 약을 똑같은 약이라고 고객에게 소개해주는 것이다. 그 행위 속에는 본인의 약국을 찾아준 고마운 고객이 추운 겨울 원하는 약을 찾기 위해 이 약국 저 약국 헤매며 고생하는 수고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선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있음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타이레놀과 비슷한 예로 '지르텍'을 찾았을 때, '노텍'이나 '쎄르텍'이 등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르텍이라는 제품은 스위스의 제약회사가 이탈리아나 스위스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약이다. 유럽에서 태어나 먼 여행을 거쳐 한국에 온 약이다 보니 같은 성분이라도 국내에서 만든 약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지르텍 대신 같은 성분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권해주었는데도, 손님은 약사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싼 게 비지떡이라던데 정말 같은 효과가 있는 약일까?'

저렴한 노텍이나 쎄르텍을 구매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르텍과 노텍, 쎄르텍은 모두 세티리진 염산염 10mg을 성분으로 하는 제품들로 각각의 상품명은 다르지만, 같은 효과를 가진 약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시 구절이 하나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이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품명과 성분명에 대해 이해한다면,

"내가 타이레놀을 불렀을 때, 타세놀이 나에게로 와서 똑같은 진통제가 되었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일일시호일

'가족과 함께하는 삶', 3m서 추락하며 산산이 부서진 꿈

줌머인 차크마 수실 씨, 한국 동경해 입국
3m 높이서 떨어지며 양발 뒤꿈치 골절상
최소 6개월 치료 필요…부상에 일할 수 없어
아내·아이와 한국서 살고 싶어…생계 문제로 위기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전법 일기

부처님 법 만난 소년원 학생들 세상의 빛이 되길 기원합니다

'안양계'라는 조계종 승가결사체가 있다.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이 전법교화활동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종단에서는 이들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이에 안양 소년원인 정심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비구니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가 안양계다. 필자는 3년 전부터 안양계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대표를 맡고 있다.

처음 포교소를 시작하며 지역사회와 연관된 활동들을 찾고 있었다. 가까이 안양교도소가 있어 교정교화 전법활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히 안양계 스님들과 연결되어 같이 활동하게 되었다. 당시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활동도 많지 않았고, 학생 수도 5~7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현재는 20~25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불교활동에 나온다. 이는 매우 괄목할 만한 일이다. 아이들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불교가 그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갔고 필요한 부분을 충족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소년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 방영되었던 〈소년심판〉이란 드라마를 떠올린다. 거기에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는 학교폭력문제는 이들을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는다. 하지만 막상 학생들을 대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눈에 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나 초점 잃은 눈빛, 약간의 방심에도 방출되는 분노와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스님들과 봉사자들 눈에는 방황하는 자녀가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없지만 그래도 힘들 때 잠시라도 곁에 있어주고, 세상을 보는 법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거기에 조금 욕심을 보태 아이들이 힘들거나 기쁠 때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리길 바랄 뿐이다.

며칠 전 겨울수련회가 있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있으며 간식도 비교적 자유로워 떡볶이와 치킨을 가지고 갔다. 첫 시작을 차명상으로 포문을 열었다. 처음 마시는 차에 짐짓 신기해하면서도 동화되는 아이들이 표정이 참 예뻤다. 간식을 먹을 때에는 선생님들을 챙기는 모습이 여느 중고등학생보다 의젓해 보였다. 1월이라 윷점으로 신년운세를 봐줬는데 아이들이 각각 윷을 던질 때 성불도 놀이처럼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합창했다. 얼마나 신나던지 벌겋게 상기된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끝날 때 "스님 언제 또 오세요?" "저희 기독교반에서 일부러 불교반으로 왔어요." "스님 나가서 연락드려도 돼요?"라는 말을 건네는 아이들로부터 내 존재가치가 느껴진다.

문득 '상생'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사실 상생의 관계이다. 불편할 순 있어도 각자의 존재가치는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들이 시설을 나간 후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후엔 세상의 빛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하니 말이다!



시현 스님
안양 행복선원 주지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⑫ 장사 경잠 선사의 오도송

향상일로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백 척 되는 장대 끝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百尺竿頭不動人)
비록 대단한 경지이긴 해도 아직 멀었네.
(雖然得入未爲眞)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百尺竿頭須進步)
온 누리 그대로 내 몸과 하나가 되네.
(十方世界是全身)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산기의 화두(공안)는 한자문화권에서 '천 길 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는 뜻을 가진 '현애살수(懸崖撒手)'와 함께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하는 꽤 격조 있는 고사성어이다.

중국이나 유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의미로 사용하고, 선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에서도 한 걸음 더 밀어붙이는 용기'를 뜻한다.

이 선시는 당나라 때 장사 경잠(長沙 景岑, ?~868) 선사의 오도송이다. 경잠 선사는 중국 호남성 장사에서 선풍을 드높였으며, 중국 선종사에서 최초로 천하를 통일하고 선의 황금시대를 연 마조(馬祖) 대사의 상족제자인 남전 보원(普願) 선사의 제자이다.

선가어록인 〈무문관〉 46칙에 다음과 같이 이 오도송의 전문이 소개되고 있다.

석상(石霜) 선사가 큰스님께 물었다. "백 척 되는 장대 끝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큰스님이 말했다. "백 척의 장대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비록 도의 경지에 들어가긴 했으나 아직 멀었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온 세상이 그대로 내 몸과 하나가 되어 내 전신(全身)을 나타낼 수 있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百尺竿頭進一步)'는 가르침은 서슬이 시퍼런 화두이다. 당송시대 선가에서는 부처를 먼 곳에서 찾지 않고 자신이 모시고 가르치는 스승인 큰스님을 부처님과 같은 존경과 귀의처인 생불 조사로 모셨다. 그 스승께서 백척간두에서 손을 놓으라고 명령한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난감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뜻일까? 이것이 '시심마(是甚麽, 이뭐꼬)' 공안이다. 선사는 "생각을 놓아 버려라. 방하착(放下着)하라. 생각이 멈춰서 고정되고 집착하면 죽는다"고 설법한다.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수상소감에서 "세상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그러면서도 이토록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다.

불교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즉 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성불하면 장대 끝에 올라앉은 것이다. 여기서 수행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부처의 임은 중생이다. 고통 받고 있는 중생 겉으로 다가가서 구제해야 한다.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은 부처 겉에서 보좌하고 있는 보처보살(補處菩薩)이다.

중생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선행 봉사자가 실제로 불보살의 화신이 되어 세상을 보살피고 있다. 이들이 있어 세상이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심우도〉의 수행 열 단계에서 마지막 열 번째 단계가 '입전수수(入廛垂手)'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시장에 나가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보살행을 함으로써 불교 수행을 완성하는 것이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나라 일이 순조롭지 않다. 그래도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향상(向上) 일로(一路)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책으로 불교 만나는 한해되길

최근 광화문 대형서점을 방문해 다양한 분야의 신간을 둘러보던 중, 잡지 코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잘 보이는 매대에 개신교와 가톨릭 관련 잡지가 한가득 쌓여있던 것. 다양한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해당 잡지들을 읽다 보니 문득 불교 잡지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졌다.

"실례합니다. 불교 잡지는 어느 쪽에 있나요?"

"불교 잡지요? 그런 게 있었나…."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 본 잡지 종교 코너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개신교·가톨릭 잡지가 무려 80여 종에 달하는 반면, 불교 잡지는 고작 4종에 불과했다. 직원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이해가 가는 차이였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현상은 잡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교보문고 종교 베스트셀러 20위에는 개신교·가톨릭 도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불교 도서는 30위 이후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한 개신교·가톨릭 도서들은 2024년 12월에 발간된 최신작들이었으나, 불교 베스트셀러는 2023년 5월에 발간된 도서가 가장 최신이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독서인구 비율은 48.5%로 2021년 45.6%보다 2.9%p 증가했다. 게다가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온·오프라인 서점 매출이 40% 이상 증가하고, SNS에서 독서 인증이 활발히 이뤄졌다. 무엇보다 2030세대에서 떠오른 '텍스트 힙(책에 열광하는 현상)' 문화는 도서 시장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중들이 독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내 주변에 불교 도서를 1권씩 선물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불자들이 친구, 가족, 혹은 이웃에게 불경 해설서, 문구 모음집 등을 전하는 문화가 퍼진다면 자연스레 대중성 높은 불교 도서가 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2025년에는 '책'으로 만나는 도반이 늘길 기대해본다.



김가령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무지개 몸’과 ‘양자 붓다’

현불논단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새해 벽두부터 첨단 미래 신기술의 각축장인 CES2025(Customer Electronics Show)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테마는 ‘몰입’(Dive In)이다. 몰입형 기기를 체험해보니 탄성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진짜보다 더 진짜답다. 사전적 의미로 ‘몰입’은 어떤 일에 집중해서 내가 나임을 잊어버리는 심리 상태다.

몰입형 장치는 대부분 특수안경을 중심으로 인간의 보조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미래 신기술은 그 너머를 꿈꾼다. 몰입의 수단으로 AI와 로봇을 내세운다. 마음(AI)과 몸(로봇)의 결합을 통해 인공존재까지 넘본다. 몰입이 주는 무아지경의 황홀감은 창조를 이끄는 원천이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놓친 몰입에는 ‘자아’라는 치명적 유령이 스며든다.

〈내가 된다는 것〉의 저자인 뇌과학자 아닐 세스는 ‘자아’라는 의식은 몸에서, 몸을 통해, 몸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자아’의 경험은 신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결합을 통한 몰입’을 화두로 전개될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이제 몸과 마음의 상호의존성과 ‘무아’의 진리에 대해 2500년이나 시대를 앞서간 불교가 전면에 나설 때이다. 기술은 죄가 없다. 인간의 무명이 문제일 뿐.

우리는 신체를 통해 ‘보는 자신’과 ‘보이는 대상’ 사이의 분리감을 통해 자신과 대상에 몰입한다. 몰입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긍정적 측면은 ‘무한잠재성’이다. 주객분리의 이원성으로 세계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상상을 불러일으켜 문명 발전에 이바지해 왔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0과 1의 이분법을 토대로 탄생된 IT기술의 빅뱅은 아직도 끝없이 진화 중이다.

몰입형 기기 발전 ‘괄목상대’
몸, 마음 아닌 중첩상태라는
티베트 밀교, 서양학자 주목

반면 부정적 측면은 파멸적이다. 몰입이야말로 모든 고의 근원이다. 몸을 갖는 마음에서 ‘몰입’이 시작되어 ‘실체감’으로 뭉쳐진다. 이 느낌이 ‘자아’로 굳어져서 결국 ‘에고’라는 갑옷으로 무장된다. 실체 없는 주인공이 벌이는 허튼짓으로 고통뿐인 윤회의 공허한 수레바퀴는 끝없이 돌고 돈다.

몸과 마음의 비이원성, 즉 불이는 불교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교리나 수행 차원에서는 대부분 마음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이제 ‘미세몸’이라는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에 대한 관찰과 제어로써 몸과 마음의 동시 성불을 추구하는 티베트 밀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아’에의 몰입을 ‘붓다’에의 몰입으로 대체하는 방편이다.

신비주의로만 여겨왔던 밀교 수행법은 이제 서양학자들도 눈독을 들일 만큼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해탈의 과보는 ‘무지개 몸’이다. 몸(입자)도 마음(파동)도 아닌 중첩상태에 가깝다는 양자역학적 의미로 ‘양자 붓다’(Quantum Buddha)라고도 한다. 물론 환으로 환을 잡는 방편의 하나지만, ‘양자 붓다’ 방편은 불교 대중화는 물론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훈아의 은퇴곡 〈공〉으로 마무리한다. 팬으로서 토를 단다. ‘공’이지만 몰입의 잔재, ‘업’은 생생히 작동되기에, ‘공수래공수거’가 아니라 ‘업수래업수거’다. 꿈이지만 결코 꿈이 아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잠시 왔다가는 인생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불안서 벗어나려면…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요즘 숨도 못 쉴 것 같고 심장이 조이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계엄의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닌데 불안해요.” 최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듣는 사례다.

이 비현실적 사건은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일상의 안전을 위협했다. 어떤 이는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으며,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날 밤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자유가 아닌 억압된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편으로 분열(분리)되어 투쟁하고 있다.

분열(splitting)은 문제를 낳는다. 자기 내면에서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분리하든, 외부의 대상을 전적으로 선과 악으로 분리하든, 분열은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은 항상 불안을 낳는다. 정신에서 분열이라는 방어기제가 사용되면 처음에는 불안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분열은 왜곡을 수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방어기제가 사용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양육자(엄마)의 미숙함이나 우울증 또는 일관성 없는 양육방식에서 비롯된다.

두 살배기는 엄마에 대해, 자신을 만족시키는 좋은 엄마(세상)와 좌절시키는 나쁜 엄마라는 분리된 어머니상을 가진다. 그러다가 결국, 아이는 엄마라는 대상이 한결같은 사랑을 주는 분(대상항상성: 대상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신뢰, 안전한 피난처)이라는 이미지로 통합한다. 즉, 아이는 자신과 엄마의 이미지를 내재화하여 ‘홀로 있을 수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비상계엄 이후 불안 호소 사례↑
불안은 억압을 낳으며 악순환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 필요해

하지만 대상항상성이 실패하면 선과 악을 통합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쉽게 배신하거나 의심하게 된다. 어렸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정감을 잃은 아이는 나머지 삶 동안 의지할 대상을 찾아 헤맬 수 있다.

불안에 대처하는 주요 방어기제는 억압이다. 불안이 억압되면 의식 영역 밖에 놓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억압은 또 다른 불안을 낳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신경증적 역설’이라고 부른다.

신경증에 기반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나 고통이 자기 내면의 갈등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대상(음식·날씨·운명 등)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투사는 가장 미숙하고 병리적인 방어기제로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 충동, 생각, 문제, 결점 등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사고(thinking)의 형태로 투사되면 망상이 되고, 지각의 형태로 투사되면 환각이 된다.

우리는 원래 하나에서 출발했으며 하나이다. 남은 과제는 통합이다. 통합은 자기 내면의 무의식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알아차림의 빛으로 비춰봐야만 회복할 수 있다. 최근 호흡기 질환의 증가와 불안한 정세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社 說

한국불교는 ‘K팝’처럼 될 수 있을까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등등.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를 장악한지 10여 년이 됐다. 당장 올해도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오징어게임2’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전원이 전역함에 따라 소속사인 하이브 주가 목표가를 28만원에서 30만으로 상향하는 증권보고서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인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6월 ‘비욘드 K 페스타’를 잠실 올림픽공원 일원에서 연다. 한류를 통한 글로벌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예산만 80억 원에 달한다.

4차 한류 시대가 열렸지만, 한국불교에 미칠 영향은 아직 미미해 보인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는 〈옥스퍼드 불교 백과사전〉(이하 백과사전)을 최근 발간했다. 약 1400여 쪽에 달하는 백과사전은 138개의 챕터로 이뤄질 정도로 방대하다. 주요 내용은 경전 해설부터 불교인물, 불교미술, 불교철학, 지역까지 전반을 망라한다. 또한 최근 부각되는 있는 세계화, 의료, 뇌과학, 미디어, 생명윤리 등 응용불교 영역도 다룬다.

옥스퍼드 불교 백과사전에 ‘한국불교’만 누락
일본불교 편중 문제지만, 세계화 현주소 확인

지역 불교의 경우 일본, 중국, 몽골, 티베트, 동남아시아 심지어 미국불교와 서구 유럽불교까지 다루지만 챕터 어느 곳에서도 ‘한국불교’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일본불교에 대한 편중이 심각했는데, 니치렌·스즈키 다이세츠 등 일본불교 법사와 신토(神道)까지 다루고 있다.

사실 인도 지역에서 발생한 불교가 동진(東進)해 중국과 한국, 일본에 전해졌고, 한반도의 불교 역사가 1700년이 됐다는 것은 불교학자라면 상식이다. 그럼에도 백과사전을 편찬하면서 ‘한국불교’ 관련 표제어를 누락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불교학계가 인력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불교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와 스님 현직에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이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한 백과사전이 “서구 유럽 불교학계 연구 주제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한국불교학계에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옥스퍼드 불교 백과사전〉은 한계가 명확한 반쪽 짜리 백과사전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불교’ 관련 목차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트렌드 2025〉에서는 올해 주목할 트렌드로 ‘그라데이션K’를 꼽았다. 국내 외국인이 증가하며 학교와 일터의 풍경이 바뀌고 있으며, 콘텐츠·음식은 물론 도시의 풍경까지 한국과 세계 문화의 경계가 흐려진다. 그렇기에 저자는 “무엇이 진정으로 한국적인가”에 대한 유연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불교 역시 세계화의 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무엇이 진정한 한국불교인가?” 이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편들이 필요할 것이다. ‘우보천리(牛步千里)’라고 했다. 소의 걸음으로 차근차근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월 2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월 2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1월 2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KOMSCO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압인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전해 받아 온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이 깃든 금강계단은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금(Au999)
중량 Weight	31.3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4,499,000원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은(Ag999)
중량 Weight	31.1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198,000원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취급 유의사항 | 소재 특성상 공기, 수분,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변색 혹은 레드스팟(붉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메달을 캡슐에서 꺼내지 마시고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육안검사를 통해 모두 품질이 보증된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